

북한사회변동 2014

시장화, 불평등, 경제개혁



집필진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은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북한사회변동 2014

## 목차

### 제1장 / 연구 개요 ..... 11

- 1. 조사 목적 12
-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14
-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17
-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26

### 제2장 / 식의주 생활의 변화 ..... 29

- 1. 서론 30
- 2. 식의주 생활의 실태와 지역별 생활수준 비교 33
- 3. 계층별 식의주 생활의 불평등 67
- 4. 평가와 시사점 76

### 제3장 / 시장화 및 소득분화와 경제개혁 인식 ..... 81

- 1. 서론 82
- 2. 시장화 84
- 3. 소득 분화 114
- 4. 경제개혁 인식 140
- 5. 평가와 시사점 153

### 제4장 /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 159

- 참고문헌 167

## 표목차

〈표 1-1〉	조사의 표본	14	〈표 2-12〉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61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16	〈표 2-13〉	도별 생활수준 비교	65
〈표 1-3〉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17	〈표 2-14〉	시별 생활수준 비교	66
〈표 1-4〉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거주지	19	〈표 2-15〉	인구사회학적 문항과 식의주 생활 문항 간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	69
〈표 1-5〉	응답자의 재북 학력수준 분포	20	〈표 2-16〉	계층별 주식 구성 비교	71
〈표 1-6〉	응답자의 재북 직업 분포	21	〈표 2-17〉	계층별 고기섭취 횟수 비교	72
〈표 1-7〉	재북 당시 응답자의 당원 여부 분포	22	〈표 2-18〉	계층별 의류 구매횟수 비교	73
〈표 1-8〉	응답자의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23	〈표 2-19〉	계층별 살림집 유형 비교	74
〈표 1-9〉	응답자의 남한 친척의 유무 분포	24	〈표 2-20〉	계층별 소득 지출 내역 비교	75
〈표 1-10〉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	25	〈표 2-21〉	계층별 남한상품 사용 경험 비교	76
〈표 1-11〉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26	〈표 3-1〉	장사경험 여부	86
〈표 2-1〉	하루 식사 횟수	35	〈표 3-2〉	남녀 성별 장사경험	87
〈표 2-2〉	주식의 구성	36	〈표 3-3〉	당원 여부별 장사경험	88
〈표 2-3〉	고기 섭취 횟수	39	〈표 3-4〉	연령대별 장사 유경험자 비율	89
〈표 2-4〉	의류 구매 횟수	42	〈표 3-5〉	교육수준별 장사 유경험자 비율	90
〈표 2-5〉	주식의 구성·의류 구매횟수 간 교차분석	43	〈표 3-6〉	공식직업별 장사 유경험자 비율	91
〈표 2-6〉	고기 섭취 횟수·의류 구매횟수간 교차분석	44	〈표 3-7〉	장사 전업 비율	92
〈표 2-7〉	의류의 원산지	46	〈표 3-8〉	장사(전업) 종사 시 상품 출처	93
〈표 2-8〉	의류의 주요 구입경로	48	〈표 3-9〉	전업 장사 종사 기간	93
〈표 2-9〉	살림집 유형	52	〈표 3-10〉	장사(전업)를 통한 월평균 가구 수입	94
〈표 2-10〉	살림집 장만 경로	54	〈표 3-11〉	장사(전업) 중 소매업 종사자 월평균 가구 수입	94
〈표 2-11〉	살림집 개조희망 사항	59	〈표 3-1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96
			〈표 3-1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97
			〈표 3-14〉	연령대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2012~2014)	98

〈표 3-15〉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종사기간(2012~2014)	100	〈표 3-36〉 이웃과의 생활수준 비교 인식	128
〈표 3-16〉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고용 여부	101	〈표 3-37〉 친인척과의 생활수준 비교인식	129
〈표 3-17〉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타인고용 비율	102	〈표 3-38〉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1순위)	130
〈표 3-18〉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고용 규모	103	〈표 3-39〉 북한에서 가장 잘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2순위)	131
〈표 3-19〉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고용 기간	104	〈표 3-40〉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1순위)	132
〈표 3-2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애로사항(1순위)	105	〈표 3-41〉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2순위)	133
〈표 3-21〉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애로사항(2순위)	106	〈표 3-42〉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1순위)	134
〈표 3-2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애로사항(1순위)	107	〈표 3-43〉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2순위)	135
〈표 3-23〉 전체 수입 중 뇌물 비중	109	〈표 3-44〉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136
〈표 3-24〉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사업용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	111	〈표 3-45〉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2순위)	137
〈표 3-25〉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사업용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	112	〈표 3-46〉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3순위)	138
〈표 3-26〉 국가로부터 지금 받은 월평균 가구 생활비 총합	115	〈표 3-47〉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140
〈표 3-27〉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 수입	116	〈표 3-48〉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 소재) 1순위	142
〈표 3-28〉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별 월평균 가구 수입(장사나 부업)	117	〈표 3-49〉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 소재) 2순위	143
〈표 3-29〉 국가지급 생활비 및 장사부업 수입(5분위) 재분류(월평균 가구소득)	118	〈표 3-50〉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수입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144
〈표 3-30〉 국가지급 생활비와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수입의 연도별 변화	119	〈표 3-51〉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수입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2순위)	146
〈표 3-31〉 경제적 취약계층 추정(월평균 가구소득)	120	〈표 3-52〉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2014)	148
〈표 3-32〉 가구별 월평균 국가지급 생활비와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 비교(2012~2014)	122	〈표 3-53〉 교육수준별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1순위)	149
〈표 3-3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월평균 가구 수입(장사나 부업)	124	〈표 3-54〉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 부자재 출처별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인식(1순위)	150
〈표 3-34〉 가구 수입별 주택마련 방법	126	〈표 3-55〉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151
〈표 3-35〉 시기별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127	〈표 3-56〉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2순위)	152

## 그림목차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35
〈그림 2-2〉	주식의 구성	37
〈그림 2-3〉	고기 섭취 횟수	39
〈그림 2-4〉	의류 구매 횟수	42
〈그림 2-5〉	의류의 원산지	47
〈그림 2-6〉	의류의 구입경로	48
〈그림 2-7〉	살림집 유형	53
〈그림 2-8〉	살림집 장만 경로	55
〈그림 2-9〉	살림집 매입 시기	56
〈그림 2-10〉	살림집 개조희망 사항	59
〈그림 2-11〉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주요 품목	62
〈그림 2-12〉	사교육 경험과 분야	63
〈그림 3-1〉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고용 여부별 뇌물 비중	110
〈그림 3-2〉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수입별 사업용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	113

제1장  
연구 개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1장

### 연구 개요

#### 1. 조사 목적

기존의 많은 북한 연구는 권력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또는 대안적 접근으로 최근 북한의 일상생활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대두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또는 기층 사회에서 지속되는 일상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및 행위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념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해당 사회를 알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기층 사회에서 꿈틀대고 있는 수많은 작은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변동은 북한 사회구조들의 유의미한 변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구조는 규범과 가치, 행위와 관계, 문화적 현상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회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가치와 규범의 변화, 행위의 유형 및 관계 패턴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의 등장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사회변동의 속도와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변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북한사회가 어떤 미래를 향해 변화가 진행되는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사회변동을 논하기에 충분치 않다. 결국 지금까지 언급했던 북한사회변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문제가 남는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사회변동조사를 통계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단편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사회의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여 변동의 속도와 요인을 분석하고 변동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 지역별 생활수준, 사회계층의 분화와 이동, 시장화의 양상, 경제행위의 다양성, 인구사회학적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연구하며,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한다.<sup>1</sup>

<sup>1</sup> 2014년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IRB No.1405/002-005)



##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의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지에 사용된 설문은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식사를 할 때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 또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산다고 생각했습니까?” 라는 형식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비록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질문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 북한주민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표 1-1〉 조사의 표본

단위: 명

조사연도 탈북연도	2012	2013	2014
	4/6-6/2	6/13-7/16	5/20-7/7
2011	127	-	-
2012	-	133	-
2013	-	-	149
총 계	127	133	149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려면 탈북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께 2014년에 입국을 했더라도 2011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보다 2014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실태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탈북과 입국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면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탈북과 입국 시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억과 의식의 변형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표본의 구성을 조사연도 직전 연도에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제한하였다. 즉, 2014년 조사의 표본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다.

조사 표본의 탈북연도를 동일하게 제한하자 표집 과정과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점점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모집단의 규모가 축소되어 동일한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표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입국자는 2,401명, 2011년 입국자는 2,706명, 2012년 입국자는 1,502명, 2013년 입국자는 1,514명, 2014년 입국자는 1,396명이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거나 조사 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전국의 하나센터, 자유시민대학, 통일비전연구회 등의 유관기관들 외에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연례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3년 동안 세 차례 실시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시계열적 데이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

고 있다. 다만, 시의성과 보완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문항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설문 내용은 크게 북한주민의 식의주 실태,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시장경제 활동의 실태,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표1-2>와 같다. 2014년 조사에서는 살림집의 장만 시기,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품목, 사교육 경험과 분야, 경제침체의 이유, 국가발전을 위한 필요 요소 등의 항목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반면 2013년 조사에 포함되어 있던 시기별 장사 단속의 정도, 정치에 대한 관심 변화, 경쟁의식의 변화, 타 지역으로의 이동성 변화 등과 같은 항목들은 2014년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범주	설문내용	
식의주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루 식사횟수</li> <li>주식의 구성</li> <li>고기 섭취 횟수</li> <li>의류 구매 횟수</li> <li>의류원산지</li> <li>의류 주요 구매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림집 형태</li> <li>살림집 장만경로</li> <li>살림집 개조 희망사항</li> <li>살림집 장만 시기</li> <li>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품목</li> </ul>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사회의 계층 구성</li> <li>지역의 빈부격차</li> <li>직업의 빈부격차</li> <li>빈부격차의 발생요인</li> <li>생활수준의 상대적 평가</li> <li>일상생활의 고민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기별 소속 계층에 대한 주관적 평가</li> <li>공식 수입과 비공식 수입의 격차</li> <li>수입의 주요 지출내역</li> <li>사교육 경험과 분야</li> <li>총지출에서 뇌물의 비중</li> </ul>
시장경제 활동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수입 원천</li> <li>자재/원료의 원산지</li> <li>시장경제 활동의 애로사항</li> <li>고용노동의 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유화의 대상</li> <li>경제침체의 이유</li> <li>국가발전을 위한 필요 요소</li> </ul>

###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 1) 성별, 연령별, 탈북-입국기간의 특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계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의 비율이 약 7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조사에서 여성의 비율은 그보다 낮다. 2014년에는 여성비율이 65%를 넘었으나,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여성비율이 약 56%를 기록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탈북현상을 주도하는 것이 북한의 젊은 층임을 시사한다.

<표 1-3>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연령 연령	2012		2013		2014	
	남	여	남	여	남	여
20대	22 (17.3)	21 (16.5)	24 (18.1)	22 (16.5)	17 (11.4)	31 (20.8)
30대	11 (8.7)	12 (9.4)	17 (12.8)	12 (9.0)	13 (8.7)	15 (10.1)
40대	10 (7.9)	21 (16.5)	11 (8.3)	27 (20.3)	12 (8.1)	27 (18.1)
50대	6 (4.7)	11 (8.7)	7 (5.3)	9 (6.8)	6 (4.0)	13 (8.7)
60대 이상	7 (5.5)	6 (4.7)	0 (0.0)	4 (3.1)	2 (1.4)	13 (8.7)
합계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연령별 그리고 전체 남녀의 성비를 나타내며, 합이 1000이 넘는 경우는 반올림 오차(rounding-error)에 해당한다. 2012년 조사의 연령대에 대한 코딩 오류 정정으로 연령대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다.

응답자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조사 대상자 전체는 2011년에 탈북하여 2011년에 입국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2012년에 입국하였으며 2명 2013년에 입국하였다. 2014년 조사에는 전원이 2013년에 탈북하였으며 이들 중 141명이 2013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8명은 2014년에 입국하였다.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2013년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57개월(표준편차=1.74), 3.37개월(표준편차=1.72개월)이었다. 2014년 조사대상자들이 탈북-입국 평균기간은 2.34개월이었고 표준편차는 1.61이었다. 달리 말하면 2012년 조사대상자의 68% 이상이 탈북 후 입국까지 4개월이 걸리지 않았으며 2013년과 2014년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76.7%와 86.1%가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고향, 학력, 직업별 특징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기 전 최종거주지는 지역적 편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으로, 2014년도의 경우 이들 지역 출신은 83.9%에 이른다. 특히 양강도 출신의 응답자가 3년 간 크게 증가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함경북도 출신이 67.3%, 함경남도 출신이 9.4%, 양강도 출신이 7.5%였다. 그런데 2014년 8월말까지의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함경북도 출신이 63.9%, 양강도 출신이 12.1%, 함경남도

출신이 9.0%이다. 모집단 자체에서 함경북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양강도 출신의 북한탈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최근의 탈북 행위가 구조적 여건이 수월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4〉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거주지

단위: 명

북한의 출신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평양	0	1	3
개성	0	0	0
남포	1	0	2
평안남도	0	2	4
평안북도	1	6	0
함경남도	14	11	9
함경북도	65	51	53
자강도	0	0	1
양강도	39	58	72
황해남도	3	0	1
황해북도	3	1	2
강원도	1	2	2
무응답	-	-	-
합계	127	133	149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았다. 2012년 조사부터 응답자의 65.4%,

71.4%, 61.7%가 고등중학교 출신들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도 약 10.2%, 16.5%, 13.4%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8월 입국자 기준으로 재북 학력 현황을 보면 고등중학교가 70.0%, 전문대 9.3%, 대학 이상 6.9%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북한사회변동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학력수준은 모집단에 비해 높은 학력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4년 조사에서 전문학교 출신 응답자 비율이 2013년 조사에 비해 많이 증가하여 21.5%를 기록하였다.

〈표 1-5〉 응답자의 재북 학력수준 분포

단위: %

교육수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대학교	10.2	16.5	13.4
전문학교	18.1	11.3	21.5
고등중학교	65.4	71.4	61.7
인민학교	3.2	0.0	2.0
무학	1.6	0.8	0.0
무응답	1.6	-	1.3
합계(N)	125	133	149

응답자들 중 노동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았다. 재북 직업이 노동자였던 응답자들은 2012년 이후 각각 37.0%, 31.6%, 30.9%를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농민, 가정부인, 장사, 사무원의 비율은 매년 72.6%, 75.2%, 73.9%였다. 전문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14년 조사에서는 재북 직업이 외화벌이였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표 1-6〉 응답자의 재북 직업 분포

단위: %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연도		
	2012	2013	2014
노동자	37.0	31.6	30.9
농민	8.7	3.8	7.4
사무원	4.7	9.8	12.1
전문가*	7.1	8.3	3.4
학생	6.3	6.0	7.4
군인	3.9	4.5	4.7
외화벌이 일꾼	2.4	2.3	0.0
장사	11.1	13.5	4.7
가정부인	11.1	16.5	18.8
무직 및 기타	6.3	3.8	10.1
무응답	1.6	-	0.7
합계(N)	127	133	149

\* 전문가에는 교원, 의사, 기술자 등이 포함됨

2012년 조사에서 노동당원이 아니었다는 응답자들은 약 84.3%였다. 당원이라고 응답한 18명의 직업은 노동자(7명), 사무원(2명), 군인(3명), 그 외 전문가, 학생, 외화벌이 일꾼, 가정부인 등이 각 1명씩 있었고 무직 혹은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명이었다. 2013년 조사 대상자 중 당원 19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사무원(6명), 노동자(5명), 전문가(2명), 군인(2명), 농민, 학생, 장사, 가정부인 등이 각 1명씩이었다. 2014년에는 노동자(7명), 사무원(4명), 군인(3명), 학생(2명), 농민,

전문가, 장사, 가정부인 등 각 1명씩 총 20명이 노동당원이었다.

〈표 1-7〉 재북 당시 응답자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당원여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당원	14.4	14.3	13.4
후보당원	0.0	0.0	0.7
비당원	84.3	85.7	85.2
무응답	1.6	-	0.7
합계(N)	127	133	149

(3) 탈북 후 북한소식 인지 및 남한 친척의 유무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에 의하면 탈북 후 북한 소식을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9.7%, 2013년 22.6%, 2014년 24.8%로 3년 연속 증가하였다. 반면에 '거의 접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1.3%, 2013년 20.3%, 2014년 17.4%로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여러 연구 보고서와 인터뷰를 통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예전에는 인적 왕래에 의한 소식 전달이 주를 이루었지만 근래에는 휴대

전화 등을 통한 소식 전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가족 및 친지들의 소식 등을 접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응답자의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조사연도		
	2012	2013	2014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9.7	22.6	24.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9.1	57.1	57.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1.3	20.3	17.4
무응답	-	-	-
합계(N)	127	133	149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남한에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2012년 62.2%, 2013년 65.4%, 2014년 69.1%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탈북-입국기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다. 2012년과 2013년의 조사결과 모든 응답자들 중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 탈북-입국 기간이 평균 3.14개월(표준편차=1.45)인 반면, 친척이 없는 경우 탈북-입국 기간은 평균 4.17개월(표준편차=2.22)이었다.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 탈북자별 탈북-입국기간의 편차가 그리 심하지 않으나, 친척이 없는 경우는 사례에 따라 그 기간이 많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런데 2014년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

는 줄어들었다. 친척이 있는 경우 평균은 3.05개월(표준편차=1.86)이고 친척이 없는 경우 평균은 3.27개월(표준편차=1.91)이었다. 이것은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9〉 응답자의 남한 친척의 유무 분포

단위: %

남한 친척	조사연도		
	2012	2013	2014
없다	37.8	34.6	30.9
있다	62.2	65.4	69.1
무응답	-	-	-
합계(N)	127	133	149

응답자의 결혼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1-10>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현재의 결혼 상태를 묻는 항목에는 결혼(동거 포함), 미혼, 이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조사에서 미혼의 응답자들은 2012년보다 8.1% 감소한 37.6%였으며, 결혼은 9.3% 증가한 53.4%였다. 이혼한 북한이탈주민들도 9.0%에 이르렀다. 2014년에는 미혼은 더욱 감소하여 30.9%에 머물렀으며 결혼은 55.0%였다. 점차 결혼을 하고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10〉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

단위: %

결혼 상태	조사연도		
	2012	2013	2014
미혼	45.7	37.6	30.9
결혼(동거포함)	44.1	53.4	55.0
이혼	9.5	9.0	14.1
무응답	0.8	-	-
합계(N)	127	133	149

응답자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자녀의 수를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자녀를 두고 왔다면 자식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들의 삶의 양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표1-11>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47.3%, 2013년 56.4%, 2014년 57.0%의 응답자들이 1명 내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는 각기 12가구이며, 2014년 조사에서는 19가구가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정이다.

〈표 1-11〉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자녀의 수	조사연도		
	2012	2013	2014
0명	24.4	38.4	34.2
1명	27.6	32.3	27.5
2명	19.7	24.1	29.5
3명	7.1	4.5	6.7
4명	1.6	0.8	1.3
무응답	19.7	-	0.7
합계 (N)	127	133	149

####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탈북하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 걸쳐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변화와 지속성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 통합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향이 일부 국경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에서 관찰된 변화를 북한사회 전체의 변화인 양 해석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한계로 시간의 경과에 의한 표본의 의식변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 참여하는 표본은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구성된다. 매년 북한사회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입국연도가 아닌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동일연도에 탈북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표집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과 입국 사이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였다.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설문지의 질문들은 재북 시기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여러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최선의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북한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절한 분석틀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최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의식주  
생활의 변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2장

# 의식주 생활의 변화<sup>2</sup>

### 1. 서론

이 장에서는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통해 북한의 사회변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북한의 사회변동을 설명하는데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이 유의미한 분석 대상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로킨(Sorokin)에 의하면, 사회변동은 내재적인 원인과 한계에서 시작된다. 변동의 내재적인 원인은 체계 자체 안에 있는 것이며, 체계는 그 자체 안에 끊임없는 변동의 씨앗을 품고 있다.<sup>4</sup>

의식주는 사회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개인이 영위하는 의식주 생활의 수준은 사회에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정치, 경제, 사회적 자원을 포함)이 결합된 복합체로서,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부르디외(Bourdieu)는 “음식, 의복, 미용에 관한 선호의 공간은 자본의 총량과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공간의 구조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sup>5</sup>고 언급

하며, 의식주 생활의 양식과 문화에서 표출되는 ‘사회적 구별짓기’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였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 역시 그의 유명한 저서 『궁정사회』에서 주거방식을 통해 사회적 인간관계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사회적 단위는 공간에 배치될 수 있으며, 그 공간 형성의 유형은 사회적 단위의 고유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언급에서 보듯, 엘리아스는 주거구조를 사회구조의 지표로 이해하였다.<sup>6</sup>

한 사회의 의식주 생활의 변화는 보다 거대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독일의 주거 변동을 통해 분단 이전, 분단, 그리고 통일 이후의 독일의 주거 변동을 분석한 호이썬만(H. Häußermann)과 지벨(W. Siebel) 역시 “사회적 변동은 주거문화의 변동에 반영된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따라서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공존하는 북한사회에서 한 개인의 의식주 생활은 공식적인 제도와 규범의 영역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도와 규범의 영역 또한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화, 소득 및 계층의 분화, 부패구조, 사유화 등과 같은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2012년~2014년 조사에서 나타난 북한주민의 의식주

2. 제2장의 글은 정은미,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아세아연구』 제57권 4호(2014), pp.142~276.을 수정 보완한 것임.

3. 박명규·장용석·정은미·송영훈, 『북한사회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15.

4. Pitirim A. Sorokin, *Society,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47).

5. 뵘에르 부르디외 저,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6), p. 374.

6.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저, 박여성 역, 『궁정사회』 (파주: 한길사, 2003), p. 118.

7. 하르트무트 호이썬만·발터 지벨 저, 서봉원 역, 『주거사회학: 주거의 변동과 세분화에 관한 개론』 (서울: 백산서당, 2014), p. 76.

생활의 변화를 분석한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시기의 북한주민 의식주 생활을 분석하지만,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읽는데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3년의 시기에 북한사회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은 바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최고지도자의 교체이다. 따라서 비록 짧은 시기이지만 최고지도자의 교체라는 변수가 북한 사회와 주민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하루식사 횟수, 주식의 구성(입쌀과 강냉이의 비율), 고기의 섭취 횟수, 의류 원산지, 의류 획득 경로, 살림집(주거시설) 형태, 살림집 장만 경로,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살림집 구입 시기, 남한상품 사용 경험, 지역별 생활수준 비교, 가계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사교육 경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장에서는 분석내용을 기술할 때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 순서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북한당국의 정책적 연유로 인해 북한주민에게는 의식주보다는 식의주의 용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설문지 구성뿐만 아니라 결과분석의 순서도 식의주 순서로 배열하였다.<sup>8</sup>

이 글은 전반부에서는 식의주 생활과 관련된 각각의 설문문항의

8\_ 북한에서 의식주를 식의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84년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김일성은 먹는 문제가 입는 문제에 우선함을 지적하며 의식주 대신 식의주 용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김일성이 인민들에게 제시했던 지상낙원으로서는 북한의 미래 모습은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사는 것'으로 식의주 순서였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가 2005년에 발간한 문헌에 의하면 2002년 9월 28일 김정일이 기존의 식의주 용어를 다시 의식주로 고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서재영,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186). 하지만 많은 탈북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 북한주민들의 삶에서 여전히 입는 문제보다는 먹는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지 구성에서도 먹는 문제를 입는 문제보다 앞서 배치하였다.

응답결과에 대한 기초적인 빈도분석의 결과를 기술하고, 후반부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와 각 설문문항과의 교차분석 및 식의주 생활 관련 설문문항간의 교차분석의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 2. 식의주 생활의 실태와 지역별 생활수준 비교

### 1) 식생활

한 사회의 생활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식생활의 수준일 것이다. 북한 당국 역시 먹는 문제 해결을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실증적 연구는 식생활을 인류 사회에서 계급 또는 계층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해하고 있다.<sup>9</sup>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시기에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특권층을 제외하면 거의 동질적인 수준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급수(1급~9급)에 따라 1일 식량 공급량이 정해졌는데, 가장 많은 식량을 공급받는 1급의 경우 유해직종 종사자나 중노동자에 해당되며 1일 900g의 식

9\_ 넬슨(Nelson)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의 방대한 시계열 자료를 근거로 계급에 따른 음식물 섭취의 변화에 관한 유용한 사례연구를 한 바 있으며, 부르디외 역시 사회계급들 사이의 음식물 차이에 그들의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Michael Nelson, "Social-class trends in British Diet, 1860~1980", in Catherine Geissler and Derek J. Oddy, ed., *Food, Diet and Economic Change Past and Present* (Leicester: Leicester Press, 1993); 뵈에르 부르디외, 『구별 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pp. 327~331.

량을 공급받았다. 일반노동자는 3급에 해당되어 1일 700g의 식량을 공급받았고, 전업주부(북한에서는 가두여성이라고 부름)나 은퇴고령자들의 경우는 7급에 해당되어 1일 300g의 식량을 공급받았다. 가장 낮은 9급은 1세 미만의 영아로 1일 100g의 식량을 공급받았다. 이밖에도 장류나 조미료, 식용유 등 기본 식자재들 역시 배급의 대상이었다. 또한 배급제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식량의 매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주민들 간에 식생활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보편적 배급제가 중단되고 시장을 통해 식량이나 식료품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북한사회에서도 경제적 지위에 따라 식생활의 차이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3년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된다.

(1) 하루 식사 횟수

하루의 식사 횟수는 식생활의 풍족함을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식생활이 충족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1차적 지표이다. 연구 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에게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하루 세 끼’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75.4%, 2013년 81.2%, 2014년 74.5%로 나타나 비교적 식생활 상태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하루 두 끼’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6.4%, 2013년 12.0%, 2014년 11.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루 한 끼’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4.9%, 2013년 6.8%, 2014년 12.8%로 3년 간 두 배 넘게 증가하여 식생활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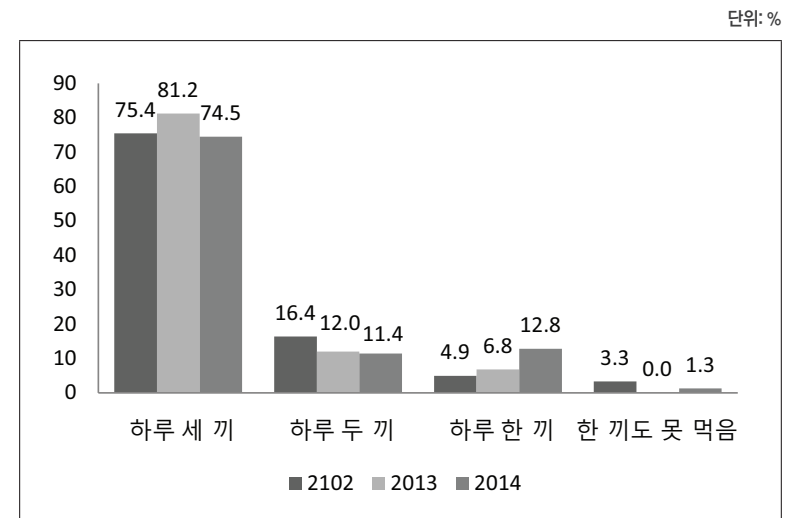
과’(2014년 6월 26일)에 의하면, 농림어업 분야 성장률이 2012년 5.3%, 2013년 3.9%, 2014년 1.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식생활이 양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표 2-1〉 하루 식사 횟수

단위: 명 (%)

조사 연도 식사 횟수	2012	2013	2014
하루 세 끼	92(75.4)	108(81.2)	111(74.5)
하루 두 끼	20(16.4)	16(12.0)	17(11.4)
하루 한 끼	6(4.9)	9(6.8)	19(12.8)
한 끼도 못 먹음	4(3.3)	0(0.0)	2(1.3)
합계	122(100.0)	133(100.0)	149(100.0)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2) 주식의 구성

북한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데 식사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북한주민 삶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변동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식사를 할 때 입쌀과 강냉이를 어떤 비율로 섞어 드셨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거의 입쌀’로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35.7%, 2013년 36.8%, 2013년 41.5%로 3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면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4.6%, 2013년 25.6%, 2014년 16.3%로 감소세를 나타내 식생활에서 어느 정도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12년 26.2%, 2013년 22.6%, 2014년 29.9%로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2〉 주식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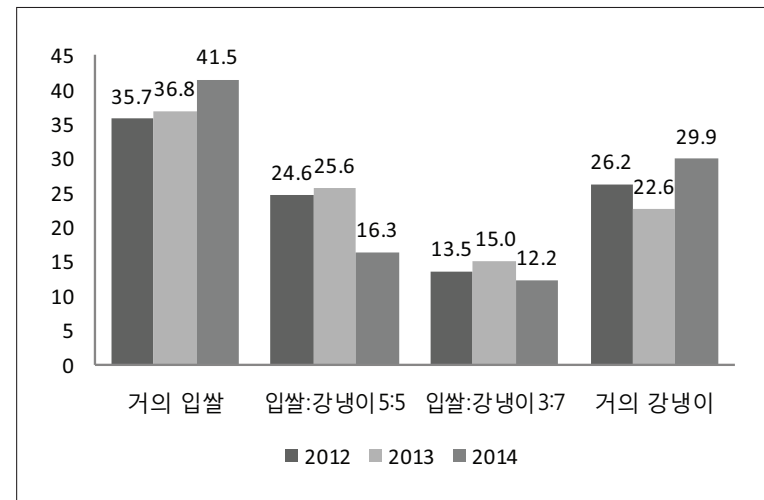
단위: 명 (%)

조사연도 곡물 비율	2012	2013	2014
거의 입쌀	45(35.7)	49(36.8)	61(41.5)
입쌀과 강냉이 5:5	31(24.6)	34(25.6)	24(16.3)
입쌀과 강냉이 3:7	17(13.5)	20(15.0)	18(12.2)
거의 강냉이	33(26.2)	30(22.6)	44(29.9)
합계	126(100.0)	133(100.0)	147(100.0)

10\_ 앨런 비어즈워스·테레사 케일 저, 박형신·정현주 역, 『메뉴의 사회학: 음식과 먹기 연구로의 초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p. 343.

〈그림 2-2〉 주식의 구성

단위: %



(3) 고기의 섭취 횟수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데 주식의 구성성분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단백질 섭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칼로리의 급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 인구집단의 평균적인 섭취수준을 각각 총칼로리의 55~77%, 10~15%, 15~30%의 범위가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1988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평균적으로 각 개인은 일일 칼로리의 30.8%를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고, 고기에서만 13.1%를 섭취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수치가 각각 8.9%와 4.3%에 불과하다. 실제로 일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일인당 일일 축산제품의 칼로리 소비량 사이에는 일관된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 요컨대, 고기 섭취는 부(富)와 분명하게 연관이 있다.<sup>10</sup>

이연숙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인구의 과반수가 탄수화물의 섭취비율은 기준보다 초과하고, 반면에 단백질과 지방은 기준보다 적다.<sup>11</sup> 통계청에서 매해 발표하는 북한통계 가운데 북한 주민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1일 단백질 섭취량 56.5g 중 식물성이 46.5g, 동물성이 10.0g으로 구성되며, 지방질 섭취량 역시 총 34.0g 중 식물성이 24.8g, 동물성이 9.2g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질의 섭취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sup> 따라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의 질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 고기의 섭취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북한주민의 단백질 섭취,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2-3>에 나타나듯,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거의 매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3.2%, 2013년 4.5%, 2014년 3.4%로 3년 동안 크게 변동이 없었다. 반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12년 46.4%, 2013년 45.1%, 2014년 43.0%로 소폭이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12년 27.2%, 2013년 27.1%, 2014년 27.5%로 3년 간 큰 변화가 없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21.6%, 2013년 23.3%, 2014년 24.8%로 3년간 조금씩 증가세를 나타냈다.

3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주민의 고기 섭취량은 여전히 부족

11\_ 이연숙,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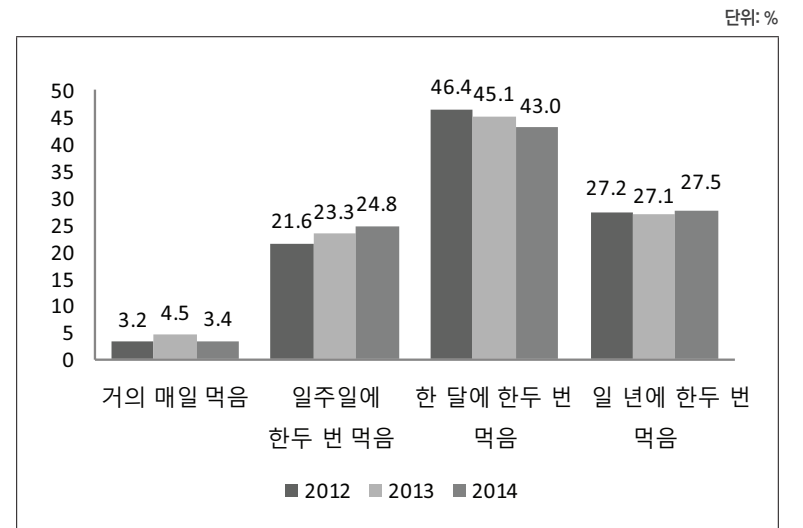
12\_ 통계청,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대전: 통계청, 2014), p. 122.

한 상태이며 크게 양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일차적으로 북한 내의 축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북한주민의 식생활 문제가 전반적으로 부식보다는 주식에 치중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3> 고기 섭취 횟수

조사 연도 섭취 횟수	단위: 명 (%)		
	2012	2013	2014
거의 매일 먹음	4(3.2)	6(4.5)	5(3.4)
일주일에 한두 번 먹음	27(21.6)	31(23.3)	37(24.8)
한 달에 한두 번 먹음	58(46.4)	60(45.1)	64(43.0)
일 년에 한두 번 먹음	34(27.2)	36(27.1)	41(27.5)
먹어본 적 없음	2(1.6)	0(0.0)	2(0.7)
합계	125(100.0)	133(100.0)	149(100.0)

<그림 2-3> 고기 섭취 횟수



3년간의 통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생활 관련 문항을 교차분석한 결과 몇 가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먼저 하루 식사 횟수와 주식의 구성을 교차분석한 결과, 하루 식사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주식에서 입쌀의 비중이 더 많아졌으며, 반대로 하루 식사의 횟수가 감소할수록 주식에서 강냉이의 비중이 더 많아졌다. 하루 식사 횟수와 고기 섭취 횟수 간의 관계 역시 식사 횟수가 증가할수록 고기를 섭취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식사 횟수가 줄어들수록 고기 섭취의 횟수도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구성과 고기 섭취 횟수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 주식에서 입쌀의 비중이 많아질수록 고기 섭취의 횟수가 증가한 반면에, 주식에서 강냉이의 비중이 많아질수록 고기 섭취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 2) 의생활

사회학자 베블런(Veblen)은 의복이 갖고 있는 과시효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의복의 기능은 단순히 그것을 입는 사람이 육체적인 안락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비싼 재화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과시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의복은 단지 초보적이고 단순한 낭비의 증거보다도 더 미묘하고 심원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sup>13</sup> 라며 의복에 내재되어 있는 다원적인 사회적 기능에 대해 언급했다. 부르디외 역시 의복에 대한 관심을 신분(또는 사회적 지위)의 상승지향의 원천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이 상승지향은 ‘외양’을 통해 ‘실제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외양이 현실성을 갖도록 하고, 명목이 실제

를 갖도록 하며 분류나 그 원리 안에서 제시되는 서열의 표상을 수정함으로써 객관적 분류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변경시키려는 일종의 허세나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영구적 성향의 원천이기도 하다.”<sup>14</sup>

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시기에 식량뿐만 아니라 의복도 배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자 상점에 가서 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에게 배당된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sup>15</sup> 식량과 마찬가지로 의복 배급 역시 급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 의복이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능을 했다. 하지만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에 의복은 권력이나 부의 과시, 치장, 체면 유지, 개성 표현 등 다양한 상징 체계를 갖게 되었다.

### (1) 의류의 구매 횟수

먼저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옷을 얼마나 자주 사 입었습니까?” 질문에 ‘일 년에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응답률은 2012년 34.9%, 2013년에 43.6%, 2014년 33.8%로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로, 2012년 32.5%, 2013년 36.8%, 2014년 33.1%의 응답률 변화를 보였다. 반면에 ‘몇 년에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23.8%에서 2013년 16.5%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 22.3%로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직접 사

13\_ 소스타인 베블런 저, 김성균 역, 『유한계급론』 (서울: 우물이있는집, 2013), pp. 207~208.

입지 못하고 남이 입던 옷을 얻어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12년 6.3%에서 2013년 2.3%로 줄어들다가 2014년 10.1%로 다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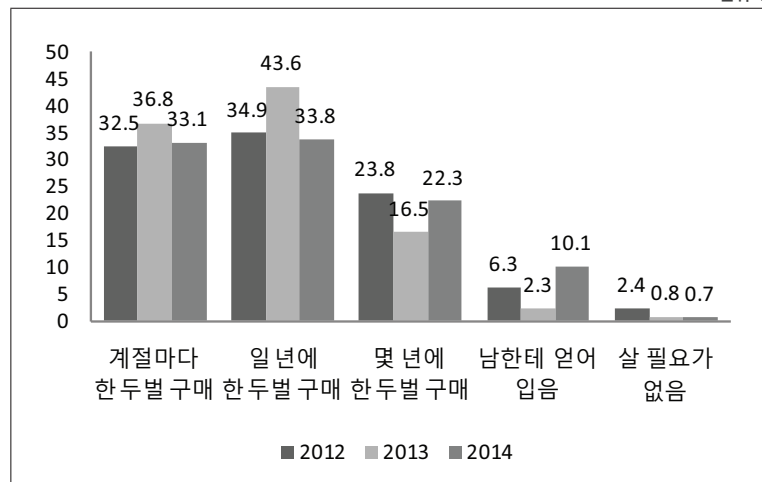
〈표 2-4〉 의류 구매 횟수

단위: 명 (%)

구매회수	조사연도	2012	2013	2014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41(32.5)	49(36.8)	49(33.1)
일 년에 한두 벌 구매		44(34.9)	58(43.6)	50(33.8)
몇 년에 한두 벌 구매		30(23.8)	22(16.5)	33(22.3)
남한테 얻어 입음		8(6.3)	3(2.3)	15(10.1)
살 필요가 없음		3(2.4)	1(0.8)	1(0.7)
합계		126(100.0)	133(100.0)	148(100.0)

〈그림 2-4〉 의류 구매 횟수

단위: %



14\_ 베에르 부르디외 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p. 456.

15\_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0』(서울: 통일부), p. 231.

그렇다면 계절마다 한두 벌씩이라도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 3년간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식생활 수준과 의류 구매횟수와 교차분석해본 결과, 의류 구매 횟수와 식사 횟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주식의 구성과 고기 섭취 횟수에서 크게 격차가 발생하였다. 주식에서 쌀의 비중이 많을수록,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응답자일수록 의류 구매 횟수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2-5>에서 보이듯 거의 입쌀로만 밥을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57.1%)이 계절마다 한 두벌의 옷을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씩 섞어 먹었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일 년에 한두 벌의 옷을 구매했다고 응답한 비율(46.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강냉이로만 밥을 먹었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몇 년에 한두 벌의 옷을 구매했다고 응답한 비율(3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2-5〉 주식의 구성·의류 구매횟수 간 교차분석

단위: 명 (%)

의류구매횟수	주식 구성	거의 입쌀로만 먹음	입쌀5: 강냉이5	입쌀3: 강냉이7	강냉이로만 먹음	합계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88(57.1)	22(24.7)	17(30.9)	12(11.2)	139(34.3)
일 년에 한두 벌 구매		58(37.7)	41(46.1)	19(34.5)	34(31.8)	152(37.5)
몇 년에 한두 벌 구매		8(5.2)	19(21.3)	14(25.5)	42(39.3)	83(20.5)
남한테 얻어 입음		0(0.0)	5(5.6)	3(5.5)	18(16.8)	26(6.4)
살 필요가 없음		0(0.0)	2(2.2)	2(3.6)	1(0.9)	5(1.2)
합계		154(100)	89(100)	55(100)	107(100)	405(100)

\* $\chi^2=115,249$ ,  $p<0.001$

다음으로 고기섭취 횟수와 의류 구매횟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2-6>에서 나타나듯 고기를 거의 매일 먹었다는 응답자들 중 86.7%는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매하였다.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73.7%는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매했다. 반면에 고기를 한 달에 한두 번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53.0%가 일 년에 한두 벌의 옷을 구매한다고 응답해 구매횟수가 크게 줄었다. 또한 고기를 일 년에 한두 번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경우에는 46.4%가 몇 년에 한두 벌의 옷을 구매했다고 응답해 구매횟수는 더욱 감소했다. 이처럼 고기 섭취 횟수와 의류 구매횟수 간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주식의 구성과 의류 구매횟수 간의 관계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비례적 상관성을 보였다.

<표 2-6> 고기 섭취 횟수·의류 구매횟수간 교차분석

단위: 명 (%)

의류구매 횟수 \ 고기섭취 횟수	거의 매일먹음	일주일에 한두번먹음	한달에 한두번먹음	일년에 한두번먹음	먹어본적 없음	합계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13(86.7)	70(73.7)	51(28.2)	4(3.6)	0(0.0)	138(34.1)
일 년에 한두 벌 구매	1(6.7)	22(23.2)	96(53.0)	33(30.0)	0(0.0)	152(37.5)
몇 년에 한두 벌 구입	1(6.7)	2(2.1)	28(15.5)	51(46.4)	2(50.0)	84(20.7)
남한테 얻어 입음	0(0.0)	0(0.0)	4(2.2)	20(18.2)	2(50.0)	26(6.4)
살 필요 없음	0(0.0)	1(1.1)	2(1.1)	2(1.8)	0(0.0)	5(1.2)
합계	15(100)	95(100)	181(100)	110(100)	4(100)	405(100)

\* $\chi^2=217.267, p(0.001)$

## (2) 의류의 원산지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중단되고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의 심각한 침체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비재의 구입은 기존의 국영상점에서 시장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대부분은 국내산보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등 국외산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북한의 국가별 교역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무려 88.3%에 이른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입는 옷의 원산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산’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2년 87.7%에서 2013년 92.5%로 증가했으나 2014년에 85.5%로 감소했다. 반면에 ‘북한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7.0%에서 2013년 3.0%로 줄었다가 2014년 9.0%로 증가했다. 비록 중국산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2014년 조사에서 북한산의 비중이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 비중이 증가한 것은 2013년도에 제조업 중 경공업 분야, 특히 섬유·의복 생산이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주민이 사용하는 의복에서 북한산의 비중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공업 산업에서 의복의 생산량 증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질적으로 북한산이 중국산이나 다른 수입산 의복보다 우위에 있어야 구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 북한 당국 역시 “생산의 량적 장성에만 치우치면서 제품의 질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대발전에 뒤떨어진 근시안



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더 좋아야 국내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며 “그렇게 되면 사람들 속에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쳐다보는 현상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sup>16</sup> 그리고 나아가 북한 당국은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의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7</sup> 이처럼 2014년 조사에서 북한산 의복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북한 당국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질적 개선과 국산화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표 2-7〉 의류의 원산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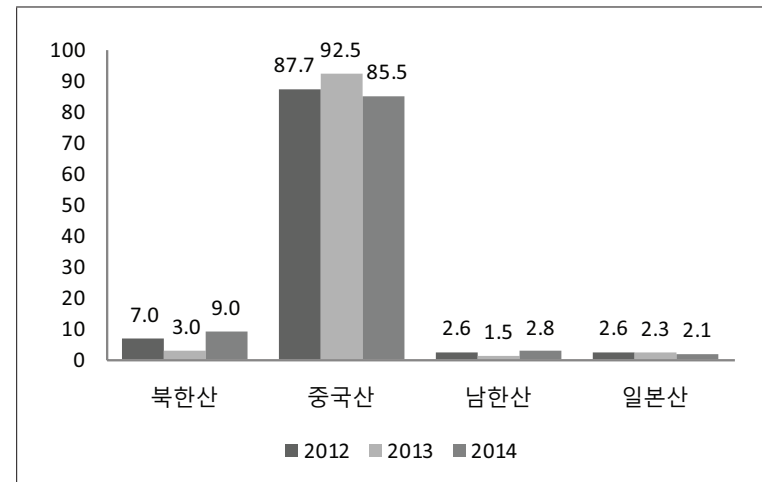
조사 연도 원산지	2012	2013	2014
북한산	8(7.0)	4(3.0)	13(9.0)
중국산	100(87.7)	123(92.5)	124(85.5)
남한산	3(2.6)	2(1.5)	4(2.8)
일본산	3(2.6)	3(2.3)	3(2.1)
기타	0(0.0)	1(0.7)	1(0.7)
합계	114(100.0)	133(100.0)	145(100.0)

16\_ 손영석,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pp. 17~18.

17\_ 김일룡,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전력 실현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p. 31.

〈그림 2-5〉 의류의 원산지

단위: %



### (3) 의류의 구입 경로

다음으로 북한주민들이 이용하는 의류가 대체로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하는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의류의 원산지가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응답했던 결과를 통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귀하가 주로 입는 옷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2012년 91.9%, 2013년 94.7%, 2014년 94.4%가 ‘시장(또는 장마당)에서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이 3년의 조사 데이터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시장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에 국영상점에서 구입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은 기존의 소비재 유통의 거점이었던 국영상점의 몰락을 의미한다. 또한 국영상점의 몰락 이면에는 국내 소비재 산업의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보

편적 배급제가 작동하던 시기에는 주문제를 기반으로 국영상점이 공산품 위주의 소비재 유통의 거점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을 거점으로 한 수입산 위주의 소비재 유통이 지배적인 구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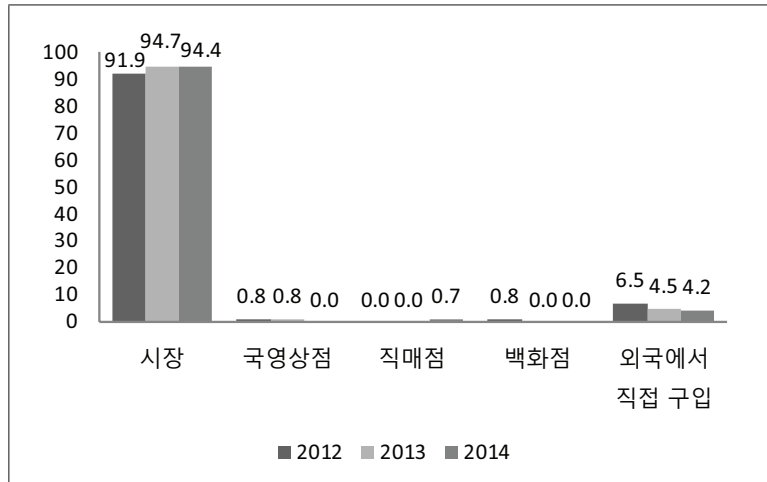
〈표 2-8〉 의류의 주요 구입경로

단위: 명 (%)

구매처	2012	2013	2014
시장(또는 장마당)	113(91.9)	126(94.7)	135(94.4)
국영상점	1(0.8)	1(0.8)	0(0.0)
직매점	0(0.0)	0(0.0)	1(0.7)
백화점	1(0.8)	0(0.0)	0(0.0)
외국에서 직접 구입	8(6.5)	6(4.5)	6(4.2)
합계	123(100.0)	133(100.0)	143(100.0)

〈그림 2-6〉 의류의 구입경로

단위: %



### 3) 주거생활

‘사회주의’에서 주택은 정치적으로(또는 관료주의적으로) 분배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택정책은 소득계급, 직업신분 등의 차이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실제로 주택보급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었다. 동독의 경우, 도심 근처, 입지 조건이 좋고, 수요가 많은 신 건설지역에는 국가기관 또는 정당기관에서 영향력이 큰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우대를 받으며 주거했다. 거꾸로 사회적 효용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주민들(노인, 부적응자, 하찮은 분야의 미숙련 노동자)은 낡은 구 건설주택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었다.<sup>18</sup>

북한에서는 주거단위 또는 주택을 ‘살림집’이라고 부른다. 북한 주택의 규모와 구조는 입주자의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4호, 특호 등 모두 5개의 유형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등적 분배보다는 정치적 조정에 의해 분배되었다.<sup>19</sup> 일반적으로 북한주민의 주택보급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을 신청하고

18\_ 하르트무트 호이쎄만·발터 지벨 저, 『주거사회학: 주거의 변동과 세분화에 관한 개론』, p. 232.

19\_ 예를 들어, 1호는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 공영주택 혹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 문화주택으로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그리고 협동농장원에게 배정된다. 2호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로 학교 교원이나 일반 노동자에게 배정된다. 3호는 기업소 부장, 중앙기관 지도원, 도 단위 부부장에게 배정되는데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이다. 4호는 중앙당과 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에 배정되는데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병온방, 배란다 시설이 딸린 아파트이다. 마지막으로 특호는 독립식 다층 주택으로 정원, 수세식 변소, 병온방 시설이 갖춰진 고급주택으로 중앙당 부부장 이상, 내각 부상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이 배정받는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0』, p. 233.

‘입사증’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최근에는 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구)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한 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총 가구수는 약 588.7만이며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수 역시 약 588.7만으로 동일해 북한의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원거가구는 99%에 이르고, 동거가구는 1%에 불과하다.<sup>20</sup> 따라서 탈북자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북한의 주거생활 실태는 유엔에 보고된 북한의 인구센서스 보고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사회에는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화도 진행되었다. 유럽사회에서 18세기부터 상업도시와 자영업도시에서 원시적 형태의 주택시장 같은 것이 생성·발전했던 것처럼, 북한사회에서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주택이 사고파는 대상이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연구논문이 나왔는데, 흥민은 북한의 아파트 건설과 시장을 둘러싸고 움직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자본가·정부관료·시장·소비자)이 얽히고 설켜 결합관계를 ‘아파트건설동맹’이라고 명명하고 있다.<sup>21</sup> 이 장에서 기술될 북한주민의 살림집 장만경로 중 ‘내 돈 주고 샀다’는 응답의 비중은 북한사회에 형성된 주택시장의 규모를 설명해줄 것이다.

한편, 주거생활과 관련한 설문 문항 중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살림집을 개조한다면 우선 무엇을 고칠 것인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은 북한의 주거문화의 변화를 읽는 데 유용하다. 주거방식과 주

거문화는 사회적 소속, 사회의 규범 그리고 물질적, 문화적 자원에 대한 처분을 나타낸다.<sup>22</sup> 북한사회에서도 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시장을 통해 획득한 부의 축적의 차이에 따라서 살림집에 대한 점유와 처분이 달라지고 있다. 나아가 살림집이 갖고 있는 문화자본 또는 상징자본의 기능이 형성되면서 살림집 개조를 통한 ‘사회적 구별짓기’의 행태들이 발생하고 있다.

### (1) 살림집의 유형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유형은 크게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로 나뉜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유형은 연립주택으로 약 588만 가구 중에서 약 258만 가구가 거주하여 4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단독주택으로 약 198만 가구가 거주하며 33.8%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약 126만 가구가 거주하며 21.4%를 차지하고 있다.<sup>23</sup> 또 도시와 농촌의 주택유형을 비교해 보면, 도시의 경우는 연립주택(49.5%), 아파트(32.5%), 단독주택(17.2%) 순서로 거주 가구 수가 많으며, 농촌의 경우는 단독주택(59.4%), 연립주택(35.1%), 아파트(4.2%)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보급률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

20\_ 김두섭 외 공저,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대전: 통계청, 2011), p. 234.

21\_ 흥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북한경제리뷰』, 2014년 8월호, p. 52.

22\_ 하르트무트 호이쎄만·발터 지벨 저, 『주거사회학: 주거의 변동과 세분화에 관한 개론』, p. 59.

23\_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Pyongyang: CBSD, 2009), p. 230.

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아파트가 도시화의 상징적 주택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탈북직전 거주한 살림집의 유형이 아파트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9.8%, 2013년 24.8%, 2014년 17.4%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의 경우는 2012년 49.2%, 2013년 48.9%, 2014년 6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2012년 25.4%, 2013년 19.5%, 2014년 15.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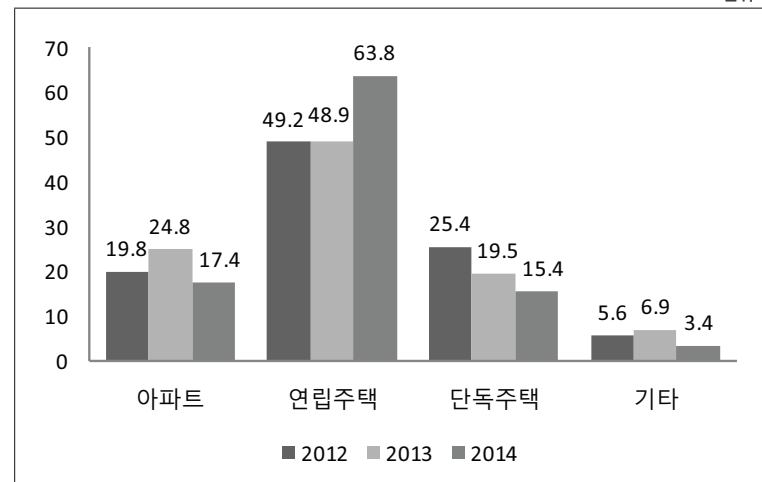
〈표 2-9〉 살림집 유형

단위: 명 (%)

유형 \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아파트	25(19.8)	33(24.8)	26(17.4)
연립주택(하모니카집)	62(49.2)	65(48.9)	95(63.8)
단독주택(독집)	32(25.4)	26(19.5)	23(15.4)
기타	7(5.6)	9(6.9)	5(3.4)
합계	126(100.0)	133(100.0)	149(100.0)

〈그림 2-7〉 살림집 유형

단위: %



(2) 살림집의 장만 경로

살림집 유형과 달리 북한주민들이 주택을 어떤 경로로 장만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변동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존에 국유의 대상이었던 주택이 개인이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은 일반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이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존재 유무는 북한사회의 사적 소유제의 부활 여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조사 결과, <표2-10>에서 보이듯 ‘국가에서 배정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8.6%, 2013년 14.3%, 2014년 23.6%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가 돈을 주고 샀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46.0%, 2013년 66.9%, 2014년 53.5%로 나타나 국가에서 배정받은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돈

을 주고 산 집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 '조상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 받았다'는 응답률은 2012년 13.5%, 2013년 9.8%, 2014년 13.9%로 나타났다. '내가 직접 지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10.3%, 2013년 6.8%, 2014년 6.9%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북한사회에서 이미 살림집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경우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홍민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북한사회는 경제적 부와 정치적 힘이 결합되어 주택시장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거주하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징표가 되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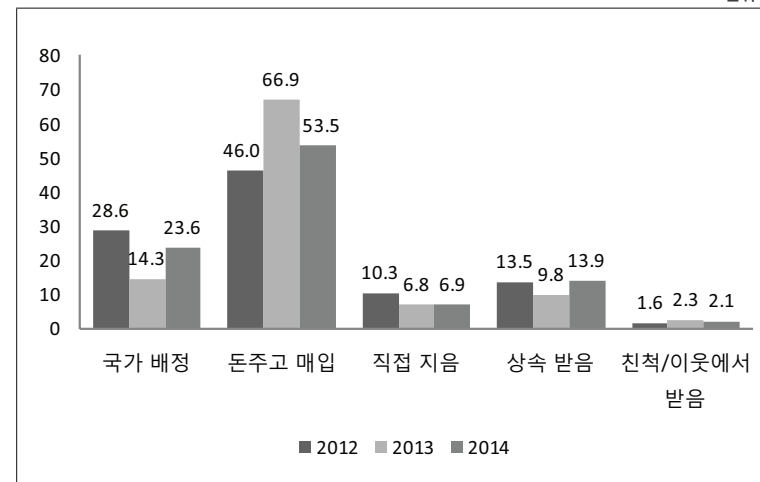
〈표 2-10〉 살림집 장만 경로

단위: 명 (%)

조사 연도 \ 장만 경로	2012	2013	2014
국가에서 배정받음	36(28.6)	19(14.3)	34(23.6)
내가 돈 주고 샀음	58(46.0)	89(66.9)	77(53.5)
내가 직접 지었음	13(10.3)	9(6.8)	10(6.9)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17(13.5)	13(9.8)	20(13.9)
친척/주변사람한테 받음	2(1.6)	3(2.3)	3(2.1)
합계	126(100.0)	133(100.0)	144(100.0)

〈그림 2-8〉 살림집 장만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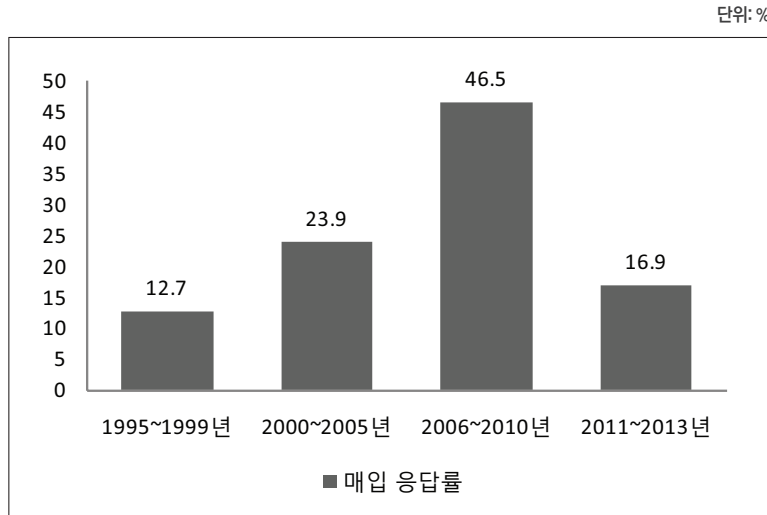
단위: %



그렇다면 북한의 주택시장은 언제부터 활성화된 것일까? 2014년 조사에 처음으로 살림집 매입 시기에 대한 설문 문항이 추가되었다. <그림2-9>에서 보듯이 돈을 주고 살림집을 장만했다고 응답한 77명 가운데 46.5%가 2006년~2010년 시기에 살림집을 매입했다고 응답했다. 2000년~2005년 시기에 살림집을 매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 2012년~2013년 시기에 매입했다는 응답자는 16.9%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북한에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된 시기는 2005년 이후로 추정된다.

24\_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p. 60.

〈그림 2-9〉 살림집 매입 시기



### (3) 살림집 개조의 희망사항

주거 생활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주택유형보다는 상수도, 화장실, 난방, 취사 등과 같은 주택의 인프라 시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에 보고된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보고서에는 상수도, 화장실 유형, 난방 및 취사 방식 등과 같은 주거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전반적인 북한사회의 주거 인프라 시설은 낙후되었고 전력이 부족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집안에 개별 수도가 있는 비중은 85%에 달하나 실제로는 전력부족으로 인해 하루에 2~3시간 제한적으로 식수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장실의 시설 경우 보고서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59.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래식 화

장실 형태이다. 물론 평양시의 경우는 76.1%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나, 농촌과 지방 도시로 내려갈수록 더 낮아져 황해남도의 경우 55.1%만이 수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sup>25</sup> 게다가 아무리 수세식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전력부족으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세식 화장실의 이용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난방 시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난방 방식은 석탄(연탄)과 목탄 난방이 각각 47.1%와 45.1%로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취사 연료 역시 석탄이 46.1%, 나무땔감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sup>26</sup>

북한주민의 주거생활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주거환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욕구는 크다. 본 조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돈이 많이 있다면 제일 먼저 살림집의 무엇을 바꾸고 싶었습니까?”를 질문했다. 그 결과, <표2-11>에서 보이듯 위생실, 난방, 수도시설과 같이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문항보다는 ‘살림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었다’와 ‘가구, 벽지, 장판 등 살림집 내부를 좋게 바꾸고 싶었다’의 문항 선택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_ 2008년에 유엔에 보고된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과 자문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센서스는 유엔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의 원칙과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진행되었으며, 집계결과와 분석 작업에서도 유엔인구기금과 수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작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필자가 다년간 수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2008년 센서스 보고서에서 제시된 통계는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률과 실제 사용률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26\_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op.cit., pp. 252~262.

먼저 살림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34.4%, 2013년 34.6%, 2014년 25.2%로 나타났고,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32.8%, 2013년 19.5%, 2014년 36.7%로 살림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다는 응답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sup>27</sup> 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어 하는 수요에는 사적 영역의 확보라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집의 크기를 늘리거나 집안을 화려하게 꾸미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문화자본의 획득 욕구로서 ‘과시하기 위한’ 생활양식의 욕구가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공공영역과 함께 사생활영역을 창출한다. 그리고 엘리야스가 말한 것처럼 주택은 사회적 서열에 걸맞은 ‘치장’을 요구한다.<sup>28</sup> 실제로 탈북자 심층면접을 해보면, 북한사회에서 주택의 크기와 인테리어는 자신의 부(富) 또는 권력을 과시하는 문화적 상징물이기도 하다. 과시적 문화자본의 획득 행위는 중간계급이나 민중계급 출신의 신흥 빈부 부르주아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sup>29</sup> 실제로 비공식 가구총수입과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가구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집 크기 혹은 방의 수를 늘리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하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

27\_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북한의 주택의 공간 활용 실태를 보면 대체로 주택의 규모가 작고 방의 수도 적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규모의 비중이 15평 미만 17%, 15~22.4평 73.5%, 22.5~29.9평 7.6%, 30평 이상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당 보유하고 있는 방의 수 역시 1개 17.2%, 2개 64.7%, 3개 17%, 4개 이상 1.1%로 나타났다. Ibid, pp. 238~251.

28\_ 노르베르트 엘리야스 저, 『공정사회』, p. 133.

29\_ 베에르 부르디외 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pp. 156~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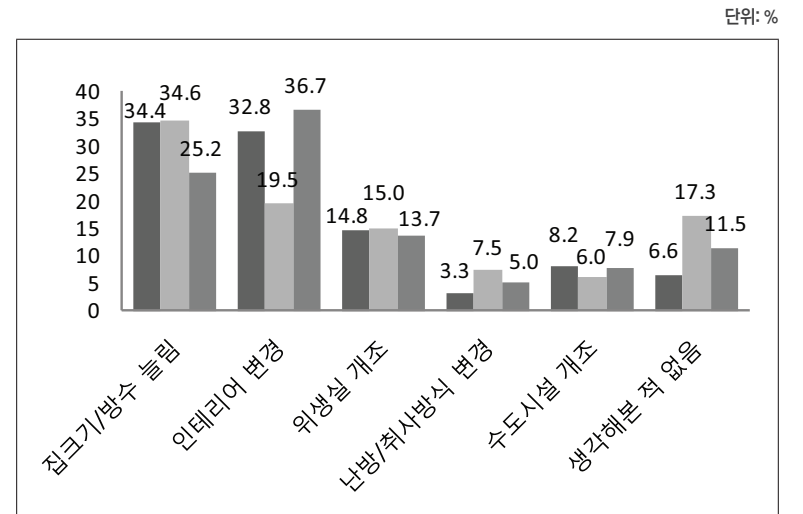
화자본의 획득 욕구의 형성은 시장을 통해 상당한 부(富)를 축적한 신흥 계층이 북한사회에서 등장하는 현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표 2-11〉 살림집 개조희망 사항

단위: 명 (%)

개조 사항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집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림		42(34.4)	46(34.6)	35(25.2)
인테리어 변경		40(32.8)	25(19.5)	51(36.7)
위생실(화장실) 개조		18(14.8)	20(15.0)	19(13.7)
난방/취사방식 변경		4(3.3)	10(7.5)	7(5.0)
수도시설 개조		10(8.2)	8(6.0)	11(7.9)
생각해본 적 없음		8(6.6)	23(17.3)	16(11.5)
합계		122(100.0)	133(100.0)	139(100.0)

〈그림 2-10〉 살림집 개조희망 사항



#### 4) 소비생활

##### (1) 가계소득의 지출 내역

가계 소득의 지출 내역을 조사한다면,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의 패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가계 소득의 지출 내역은 그들의 소비생활의 패턴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북한사회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지표가 된다. 경제생활에서 시장의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불균등 현상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개인의 소비생활 역시 빠르게 분화하고 있다.<sup>30</sup>

먼저, 북한주민이 가계소득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부문은 3년 연속 '식의주 문제 해결'이 꼽혔다. <표2-12>에 보듯이 1순위 응답에서는 식의주 문제 해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2년 75.2%, 2013년 75.8%, 2014년 75.2%로 세 차례의 조사에서 거의 동일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2순위 응답에서는 3년 연속 '장사 또는 사업 밀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2년에 44.2%, 2013 38.9%, 2014년 41.3%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순위의 경우에는 2012년과 2013년에는 '자녀교육'이 각각 21.8%와 2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반면에, 2014년에는 '미래를 위해 모아둔다'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서 돈을 모아둔다는 것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저축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 축장(蓄藏)의 의미에 가깝다. '어떤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두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여전히 식의주 문제 해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지출 내역 중 '미래를 위해 모아둔다'는 응답이 매우 극소수였는데 반해 2014년 조사에서는 3순위까지 올라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주목할 점은 북한 주민들이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위해 가계경제를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 소득을 모두 현상 유지하는 데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소득을 모아둔다는 것은 사적 자산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2-12>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순위	식의주 문제 해결 (75.2)	식의주 문제 해결 (75.8)	식의주 문제 해결 (75.2)
2순위	장사/사업 밀천 (44.2)	장사/사업 밀천 (38.9)	장사/사업 밀천 (41.3)
3순위	자녀교육(21.8)	자녀교육 (22.7)	미래위해 모아둠 (21.9)
	뇌물(21.8)		

##### (2)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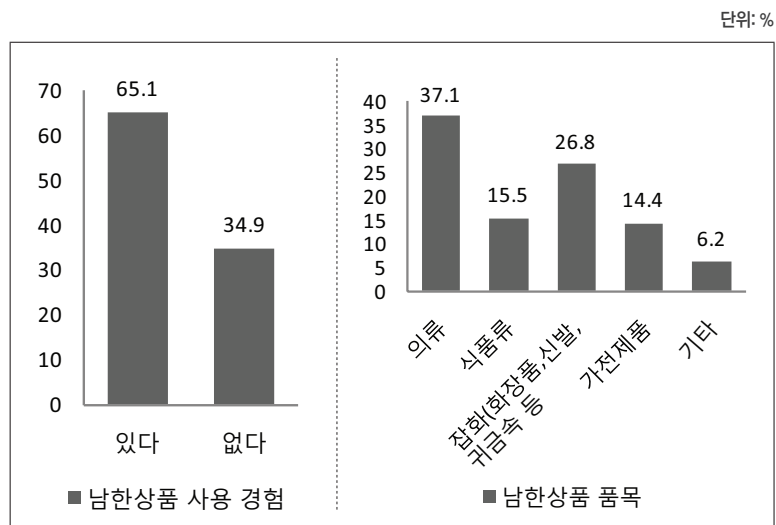
2014년 조사에서는 북한에 거주하던 시기에 남한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북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문화 영역에 집중되어 경제 영역에서는 얼마

30\_ 박명규·장용석·정은미·송영훈, 『북한사회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p. 61.



나 확산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부족한 현실이다. 먼저 <그림2-11>에서 보이듯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북한에 거주하던 시기에 '남한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1%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용한 남한물건의 품목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의류(37.1%)이고, 2위는 화장품·신발·악세서리 등 잡화(26.8%)이며, 3위는 식품(15.5%)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주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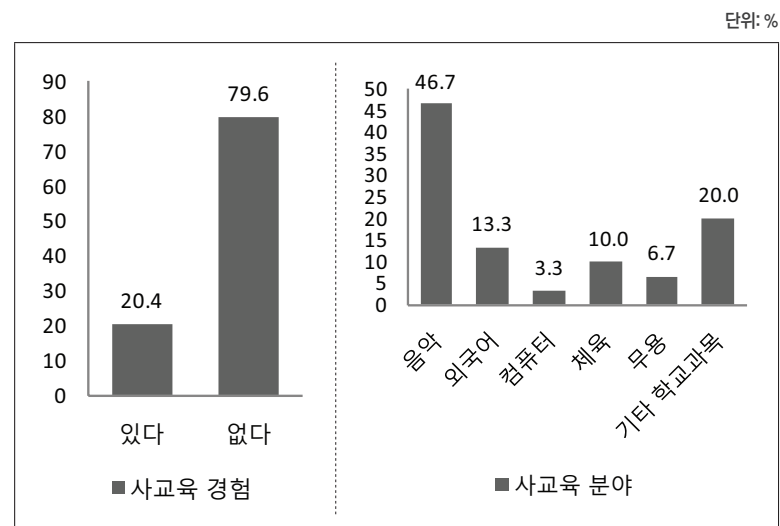


### (3) 사교육 경험과 분야

앞서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2년 연속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이 2순위로 비중이 많았다. 따라서 2014년 조사에는 북한주민이 자녀교육을 위해 공교육 이외에 사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

고 있으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사 결과, <그림2-12>에서 보이듯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20.4%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의 분야로는 음악(46.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외국어(13.3%) 순서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주민의 사교육의 비중은 사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계층 분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2> 사교육 경험과 분야



## 5) 지역별 생활수준 비교

### (1) 도(道)별 생활수준 비교

앞서 살펴본 식의주 생활에서 나타난 불평등의 구조는 지역적 차원에까지 확대된다. 우선 지역별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만, 평양시의 특수성이 있어 질문지에서는 평양시를 제외하고 지역별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평가는 도와 시 단위로 나누어 각각 이루어졌다. 먼저, 도별 생활수준 평가에서는 <표2-13>에 나타나듯 가장 잘 사는 도의 경우 1순위에 3년 연속 ‘평안남도’가 꼽혔다. 구체적으로 평안남도라고 꼽은 응답률은 2012년 38.4%, 2013년 41.4%, 2014년 31.8%로 나타났다. 평안남도는 평양시와 인접한 행정구역이며 동시에 공업과 농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행정구역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중간 정도 사는 도의 경우 1순위에 3년 연속 ‘양강도’가 선택되었다. 응답률은 2012년 26.1%, 2013년 24.1%, 양강도 25.5%로 나타났다. 양강도는 중국과 접경지역이고 변경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가장 못사는 도의 경우 3년 연속 ‘강원도’가 1순위로 뽑혔다. 응답률은 2012년 40.0%, 2013년 43.2%, 2014년 35.4%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국경 및 수도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인적 이동뿐만 아니라 물적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더욱이 군사분계선과 맞닿아 있는 연선지대이기 때문에 군사지역으로서 개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2-13> 도별 생활수준 비교

단위: (%)

지역(도) 순위 \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가장 잘 사는 도	평안남도(38.4)	평안남도(41.4)	평안남도(31.8)
중간 정도 사는 도	양강도(26.1)	양강도(24.1)	양강도(25.5)
가장 못사는 도	강원도(40.0)	강원도(43.2)	강원도(35.4)

### (2) 시(市)별 생활수준 비교<sup>31)</sup>

평양시를 제외한 시별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질문에서는 <표2-14>에 나타나듯이 가장 잘 사는 시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에는 연속 라선시가 1순위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 신의주시가 1순위를 차지했다. 라선시는 북한에서 경제자유무역지대<sup>32)</sup>로서 외부의 상품 및 자본의 유통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도 돈과 물건이 가장 많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신의주시 역시 중국의 단둥과 접경하고 있는 도시로서 북중무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로서, 인적 왕래뿐만 아니라 큰 물류시장으로 꼽힌다.

다음으로 중간 정도 잘 사는 시의 경우, 1순위에 2012년에는 라선시가, 2013년에는 청진시가, 2014년에는 혜산시가 꼽히는 등 다수의 시가 거론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거론된 도시들은 모두 국경과 가깝고, 무

31\_ 설문지에 제시된 시들은 제한적이다. 북한에 있는 모든 시들을 설문지에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설문지에는 각 행정구역의 도 소재지 또는 특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32\_ 라선시는 1991년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선포된 이후 2010년 1월 특별시로 지정되었다.

역과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못 사는 시의 경우는 '사리원시'가 3년 연속 1순위를 차지하였다. 물론 실제로 북한에는 사리원시보다 못사는 도시들이 많이 있다. 다만 설문지에 모든 시들을 제시할 수 없어 지역성과 경제·정치적 특수성을 지닌 시들을 중심으로 제시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사리원시의 경우 농업중심의 도시를 대표한다. 따라서 조사 결과 사리원시가 가장 못사는 도시로 3년 연속 꼽혔다는 것은 실제로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업 및 상업이 발달된 도시에 비해 농업이 발달된 도시가 상대적으로 못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4〉 시별 생활수준 비교

단위: (%)

지역(시) 순위 \ 연도	2012	2013	2014
가장 잘 사는 시	라선(37.1)	라선(34.1)	신의주(35.6)
중간 정도 사는 시	라선(19.7)	청진(22.0)	해산(24.5)
가장 못사는 시	사리원(30.3)	사리원(26.0)	사리원(25.2)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사회의 지역별 생활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2013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4년 역시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별 부(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과 상품의 유입이 많은 지역들에 부(富)가 집중되고 있다. 셋째, 지역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다. 세 차례의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잘 사는 지역(도/시), 중간 정도 사는 지역(도/시), 가장 못 사는 지역(도/시)의 순위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지역의 불균형 또는 지역별 빈부격차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계층별 식의주 생활의 불평등<sup>33</sup>

#### 1)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와의 관계

이상에서는 북한주민의 식의주 및 소비 생활, 그리고 지역별 생활 수준의 차이를 빈도분석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위에서 기술한 식의주 생활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 따라 분포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문항과 식의주 문항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15>에서 보이듯 교차분석에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북한에서의 거주지역/교육수준/직업,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포함된다. 그리고 식의주 문항에는 하루 식사 횟수, 주식의 구성, 고기 섭취 횟수, 의류 구매 횟수, 의류의 원산지, 의류 구매경로, 살림집의 유형, 살림집 장만경로,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그리고 남한상품 사용경험이 포함된다.

교차분석은 명목 또는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두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또는 독립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서, 카이제

33\_ 이 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층의 용어는 응답자가 탈북직전 시기에 자신이 속했던 계층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주관적인 계층의식' 또는 '귀속적 계층'을 의미한다.

곱( $X^2$ ) 검정을 흔히 이용한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것은 교차분석한 두 문항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2-15>에서 \*로 표시된 문항들은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p값)이 <0.05 또는 <0.01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즉, \*로 표시된 문항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15>에서 보이듯 성별과 교육수준은 거의 대부분의 식의주 생활의 문항들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식의주 생활 문항들 중 단 한건의 문항과도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사회에서는 아직 학력자본이 계층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연령, 직업, 그리고 계층 변수는 식의주 생활의 문항들 상당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보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표본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편중 현상이 심해 두 지역을 통제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 변수에서는 상호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항목은 소비지출 내역이 유일하다. 연령의 경우는 주식 구성, 고기 섭취 횟수, 의류 구매 횟수, 살림집 장만 경로, 남한물건 사용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변수의 경우 의류 구매처, 살림집 유형, 살림집 장만 경로에서 상호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무원, 학생, 장사, 가정부인의 직업군에서 남한물건 사용 경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계층 변수의 경우는 식사횟수, 주식구성, 고기섭취 횟수, 살림집 유형, 소비지출 내역, 남한상품 사용 경험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항목들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표 2-15> 인구사회학적 문항과 식의주 생활 문항 간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

의식주	변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교육 수준	직업	계층
하루 식사 횟수		-	-	*	-	-	*
주식구성		-	*	-	-	-	*
고기 섭취 횟수		-	*	-	-	-	*
의류 구매 횟수		-	*	-	-	-	*
의류 원산지		-	-	*	-	-	-
의류 구매처		-	-	*	-	*	-
살림집 유형		-	-	*	-	*	*
살림집 장만 경로		-	*	*	-	*	-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	-	-	-	-	-
소비지출 내역		*	-	-	-	-	*
남한상품 사용경험		-	*	*	-	-	*

\* 표시: 카이제곱 검정 결과의 유의성

## 2) 계층별 식의주 생활 비교

### (1) 계층별 식생활 비교

연구 참여자들에게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 3년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

로 했을 때, 상층에 속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 중층에 속했다는 응답률은 62.6%, 하층에 속했다는 응답률은 32.7%로 나타났다. 다시 비공식 월소득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해 보면, 하층은 10만원 미만의 소득 집단으로 39.3%, 중층은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으로 48.3%, 상층은 100만원 이상으로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 조사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해 본 결과 계층별 주식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표2-16>에서 보이듯 상층의 경우 거의 입쌀로 밥을 먹었다는 응답률이 84.2%로 나타난 반면에, 중층의 경우는 47.8%만이 거의 입쌀로 밥을 먹었다고 응답해 상층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응답률이 감소했다. 대신 입쌀과 강냉이가 반반씩 섞인 밥을 먹었다는 응답률의 비중이 상층의 경우 10.5%인데 반해 중층은 25.7%로 크게 늘었다. 하층의 경우는 거의 강냉이로만 밥을 먹었다는 응답의 비중이 53.5%로 나타나 계층 간 식생활의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층의 경우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비율이 2012년 81.8%, 2013년 80.0%, 2014년 100%로 증가세를 보였다. 중층의 경우 역시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41.3%, 2013년 43.0%, 2014년 56.7%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하층의 경우 거의 입쌀로 밥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20.4%, 2013년 14.3%, 2014년 6.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하층에서 거의 강냉이로 밥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49.0%, 2013년 48.6%, 2014년 62.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층과 중층에서는 식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하층의 경우는 오히려 질적 수준이 후퇴하고 있어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sup>34</sup>

<표 2-16> 계층별 주식 구성 비교

단위: 명 (%)

주식 구성	계층	상층	중층	하층	합계
거의 입쌀		16(84.2)	121(47.8)	18(14.0)	155(38.7)
입쌀과 강냉이 5:5		2(10.5)	65(25.7)	21(16.3)	88(21.9)
입쌀과 강냉이 3:7		0(0.0)	33(13.0)	21(16.3)	54(13.5)
거의 강냉이		1(5.3)	34(13.4)	69(53.5)	104(25.9)
합계		19(100.0)	253(100.0)	129(100.0)	401(100.0)

\* $\chi^2=100.180, p<0.001$

다음으로 계층별 고기섭취의 횟수를 비교해보면 <표2-17>에 나타나듯 상층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 중층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하층의 경우 '일 년에 한두 번'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패턴이 3년 동안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률을 보면, 상층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6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층의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층의 경우에는 일 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58.8%로 가장 높았다.

고기 섭취 횟수에서는 중층의 고기 섭취량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하층의 경우에는 고기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

34\_ 2012년 입쌀로만 식사했다는 응답자 중 상층과 하층 간 격차가 61.4%p였던 데 반해, 2014년에는 상층과 하층 간 격차가 93.3%p로 크게 늘어났다.

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응답률의 변화를 보면, 상층의 경우 일주일에 한 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81.8%, 2013년 40.0%, 2014년 66.7%로 변동이 심한 편인데 반해, 중층의 경우 2012년 25.8%, 2013년 29%, 2014년 35.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층의 경우 일 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51.0%, 2013년 62.9%, 2014년 63.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2-17〉 계층별 고기섭취 횟수 비교

단위: 명 (%)

고기섭취 횟수 \ 계층	상층	중층	하층	합계
거의 매일	2(10.5)	12(4.8)	1(0.8)	15(3.7)
일주일에 한두 번	13(68.4)	77(30.6)	5(3.8)	95(23.6)
한 달에 한두 번	3(15.8)	131(52.0)	44(33.6)	178(44.3)
일 년에 한두 번	1(5.3)	32(12.7)	77(58.8)	110(27.4)
먹어본 적이 없음	0(0.0)	0(0.0)	4(3.1)	4(1.0)
합계	19(100.0)	252(100.0)	131(100.0)	402(100.0)

\* $\chi^2=138.131, p<0.001$

(2) 계층별 의생활 비교

의류 구매횟수를 제외하고 의류 장만경로나 원산지의 경우는 계층과의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계층별 의류 구매횟수를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2-18>에서 보이듯 식생활과 마찬가지로 의생활에서

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층의 경우 78.9%가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입했다고 응답한 반면, 중층의 경우는 43.5%만이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입해 입었다고 응답했다. 하층의 경우는 10% 정도만이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입했다고 응답해 계층 간의 류 구매횟수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3년간의 변화를 보면, 중층의 경우 계절마다 한두벌의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2012년 38.1%, 2013년 45.2%, 2014년 45.4%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하층의 경우는 계절마다 한두벌의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2012년 12.2%, 2013년 11.4%, 2014년 6.5%로 계속 하락하였다. 의복 구매횟수에서 중층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다는 점은 중층의 북한주민에게도 옷이나 치장을 통한 상승지향의 욕구가 강하게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8〉 계층별 의류 구매횟수 비교

단위: 명 (%)

의류 구매횟수 \ 계층	상층	중층	하층	합계
계절마다 한두 벌	15(78.9)	110(43.5)	13(10.0)	138(34.3)
일 년에 한두 벌	3(15.8)	102(40.3)	46(35.4)	151(37.6)
몇 년에 한두 벌	1(5.3)	33(13.0)	48(36.9)	82(20.4)
남의 옷을 얻어 입음	0(0.0)	4(1.6)	22(16.9)	26(6.5)
구입할 필요없음	0(0.0)	4(1.6)	1(0.8)	5(1.2)
합계	19(100.0)	252(100.0)	131(100.0)	402(100.0)

\* $\chi^2=102.167, p<0.001$

(3) 계층별 주거생활 비교

계층별 살림집 유형을 비교해보면, <표2-19>에 나타나듯 상층의 경우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률이 52.6%로 중층(20.2%)과 하층(13.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파트의 경우는 상층 26.3%, 중층 22.9%, 하층 15.2%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계층 간 큰 격차는 아니었다. 반면에 연립주택의 경우는 상층 15.8%, 중층 53.0%, 하층 63.6%로 아파트의 응답률 분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즉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계층 간 응답률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앞서 살펴본 식생활과 의생활에 비해 북한사회에서 주거생활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거주 비율이 높고, 반대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연립주택의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주거생활이나 주거 문화에서 계층 간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9> 계층별 살림집 유형 비교

단위: 명 (%)

살림집 유형 \ 계층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아파트	5(26.3)	58(22.9)	20(15.2)	83(20.5)
연립주택	3(15.8)	134(53.0)	84(63.6)	221(54.7)
단독주택	10(52.6)	51(20.2)	18(13.6)	79(19.6)
기타	1(5.3)	10(4.0)	10(7.6)	21(5.2)
합계	19(100.0)	253(100.0)	132(100.0)	404(100.0)

\* $\chi^2=25.432, p<0.001$

(4) 계층별 소득 지출 내역 비교

앞서 살펴본 식의주 생활 분석에서는 북한주민의 가계소득 지출 내역에서 '식의주 해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층별 가계소득의 지출내역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중층과 하층의 경우에는 식의주 해결에 대부분의 가계소득을 지출하는 것이 맞지만, 상층의 경우에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표2-20>에 나타나듯, 상층의 경우 44.4%는 식의주 해결에, 그리고 44.4%는 장사나 사업 밀천에 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 교육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둔다는 항목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중층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사회계층 차원에서 상층 이동의 잠재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0> 계층별 소득 지출 내역 비교

단위: 명 (%)

지출 내역 \ 계층 구분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식의주 해결	8(44.4)	179(71.6)	112(86.8)	299(75.3)
자녀 교육	0(0.0)	9(3.6)	1(0.8)	10(2.5)
장사/사업 밀천	8(44.4)	35(14.0)	6(4.7)	49(12.3)
뇌물	2(11.1)	11(4.4)	3(2.3)	16(4.0)
사치품 소비	0(0.0)	8(3.2)	0(0.0)	8(2.0)
문화생활	0(0.0)	2(0.8)	1(0.8)	3(0.8)
미래를 위해 모아둠	0(0.0)	6(2.4)	3(2.3)	9(2.3)
기타	0(0.0)	0(0.0)	3(2.3)	3(0.8)
합계	18(100.0)	250(100.0)	129(100.0)	397(100)

\* $\chi^2=44.706, p<0.001$

(5) 계층별 남한상품 사용경험 비교

마지막으로 2014년 조사에서 흥미로운 항목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물건을 사용한 경험에 관한 것으로, 이 응답에서 계층 간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2-21>에서 보듯 상층의 경우 남한 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0.0%, 중층에서는 75.3%, 하층에서는 42.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잘 살수록 남한물건을 사용하는 경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화적 측면에서 한류의 영향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한류의 영향이 북한의 하층보다 중·상층에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21> 계층별 남한상품 사용 경험 비교

단위: 명 (%)

경험 유무 \ 계층 구분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사용경험 있음	3(100.0)	73(75.3)	20(42.6)	96(65.3)
사용경험 없음	0(0.0)	24(24.7)	27(57.4)	51(34.7)
합계	3(100.0)	97(100.0)	47(100.0)	147(100.0)

\* $\chi^2=16.573, p(0.001)$

4. 평가와 시사점

1945년 9월 기나긴 항일투쟁을 마치고 소련에서 귀국한 김일성이 ‘조선땅’에서 이룩하고자 했던 ‘혁명 위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극히 ‘인민적’ 목표, 즉 모든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

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한 때 이러한 목표는 현실화되는 듯이 보였으나 김일성의 죽음과 함께 혁명의 위업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뒤를 이은 아들인 김정일도 이 인민적 혁명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세 번째 권좌를 이어받은 김정은은 “지난 시기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우리 인민들이 오래동안 세기적 념원으로 간직하여 오던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으로 규정하고 “오늘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념원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웅대한 인민생활전략을 수립”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의 목표와 수준을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생활수준,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사실 김정은이 제시한 목표는 김일성의 것보다 더 모호하고 수사적이다. 또한 2015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문명국’ 용어를 3회나 언급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신년사에 그 용어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이례적이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 교육, 체육, 보건, 문예 사업을 강조하였다.<sup>35</sup>

김정은은 양(量)보다는 질(質)을 강조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듯 인민들의 요구도 변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지식인들은 “질이 낮은 제품이라도 량적으로 많이 보장되면 그만이라던 그러한 관점은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다”며,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살림집을 하나 쓰고 옷을 한 벌 해입어도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시대적

35\_ 김일룡,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전략 실현의 중요방도,” p. 30.



미감에 맞는 질 좋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sup>36</sup>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이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한계는 3년간의 북한사회변동조사 결과를 통해서 일정하게 확인된다. 식량문제 해결을 ‘주공전선’으로 하여 이 부분에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지난 3년간의 식생활의 양적 수준은 조금씩 개선되었다. 또한 인민소비품 생산의 정상화와 함께 원료 및 자재의 국산화를 강조한 정책의 결과, 의복의 북한산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우선 식의주 생활에서 국가 주도의 ‘질적’ 향상은 크게 진전되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질적 향상은 국가 밖의 요인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국가 밖의 요인이라 함은 개인, 시장, 사회, 변경 지역 등이 포함된다.

세 차례의 북한사회변동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은 국가의 영역에서 개인과 시장의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정치적(또는 관료적) 조정과 분배에 의해서 식의주가 보장되는 특별한 집단이 존재하지만, 대다수 인민의 식의주 생활은 개인이 개발하거나 형성한 경제자본, 정치자본, 사회관계자본을 시장교환관계에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과 수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또는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식생활은 가장 빠르게 계층적으로 위계화되었으며, 의복은 과소비의 수단이 되고 있고, 주거 양식 역시 금력과 권세의 과시와 사회적 구별짓기의 상징자본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 분배는 지역적 범위가 지 점차 확대되어 지역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하고 있다.

36\_ 손영석,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 p. 17.

제3장

**시장화 및  
소득분화와  
경제개혁 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3장

## 시장화 및 소득분화와 경제개혁 인식

### 1. 서론

북한의 변화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 주제이자 논란의 대상이 된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관심이 북한의 변화에 대한 논의로 구체화되고, 정책적으로는 대북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남한의 국민들 중에서도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sup>37</sup> 북한의 변화에 관한 실제적 인식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한 가운데 자리잡은 상황이다.

북한의 변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인 영역에서의 시장화와 소득분화이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최고영도자와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유일적 영도체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sup>38</sup> 군사적으로도 선군정치 하에서 핵무기 개발과 보유, 전력화가 중단없이 추진되면서<sup>39</sup> 변화의 징후가 크게

37\_ 장용석, "2014 통일외교조사: 대북정책,"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2014 통일외교조사 발표 (2014년 10월 1일), p. 70.

38\_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시장을 매개로 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 등은 북한사회 변화의 징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화 현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sup>40</sup> 아울러 시장화의 진전은 소득분화로 이어지고 있다.<sup>41</sup>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이 고소득층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반면, 공식적인 생활비 지급이나 배급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빈곤층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나 소득분화는 그러한 변화가 정치변동을 포함하여 북한체제의 전환에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된다. 시장화와 소득분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다원성이 증가하고 정보의 유통이 빨라지며 새로운 사회집단이 형성되는데,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시장화와 소득분화에 대한 조사연구

39\_ 함형필, "북한의 군사위협 변화: 핵능력 발전과 핵운용 전략," 『한국의 안보와 국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p. 177~201.

40\_ 북한의 시장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양문수, "북한 시장화 논의의 지형과 담론," 『북한의 권력과 사회동학』, 북한연구학회 주최 하계학술회의 (2014년 7월 11일) 참조. 아울러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하여 비공식 경제의 성장요인에 대한 최근 연구로 김석진 외,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참조.

41\_ 북한의 소득분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탁성한 외, "북한의 불평등성 실태와 심도 추정," 성채기 외, 『북한 경제규모의 대안적 추계와 불평등의 실상』 (서울: 국방연구원, 2014); 정은찬, "북한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참조. 두 논문 모두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지니계수 추정 등을 시도하였는데, 탁성한 외의 글은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니계수 자료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있으며 정은찬은 북한이탈주민 47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있다.

구는 북한사회변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뿐 아니라 정책적 함의 또한 강하게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함의들을 지닌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소득분화를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제난의 원인과 개혁방향에 대한 조사결과도 분석한다. 이 가운데 경제난의 원인과 개혁방향에 대한 조사는 2014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sup>42</sup>

## 2. 시장화

북한의 시장화가 포괄하는 범위나 질적인 발전양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sup>43</sup> 시장화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한편으로는, 개인도매나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운수업, 개인수공업, 텃밭이나 뚝배기와 같은 소토지 농사 등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생산활동을 모두 시장화에 포함하는 시각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재 시장뿐 아니라 생산재 시장과 자본 및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4대 시장을 포함하여 특히 외화벌이 사업을 비롯한 대외무역과도 밀접한 다양한 경제활동까지를 포괄하기도 한다. 또한 시장의 질적인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시장의 지역적 연계와 통합성 제고, 도소매 시장의 분화 등 시장의 기능적 분화에 주목하였고, 제조업

42\_ 2012년과 2013년 조사에 관해서는 박명규·장용석·정은미·송영훈, 『북한사회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참조.

43\_ 양문수, “북한 시장화 논의의 지형과 담론,” pp. 103~110.

이나 무역업, 서비스업 등 영세자영업 수준에서 개인기업의 등장이나 대부투자와 명의대여 등을 통한 소규모 사유화의 실질적 진전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기업경영의 등장 등도 논의한다.<sup>44</sup>

본 조사는 시장화의 범위나 질적인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고려하되, 개인들의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시장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시장의 매대를 임대한 소매나 도매업, 미용이나 전자제품 수리 등 개인서비스업, 의류나 신발, 가구 제작 등 가내수공업을 비롯한 개인(입)가공, 국영상점이나 식당을 임대한 자영업, 수출 원천 동원이나 대치물자 수입 등 외화벌이, 사금융인 돈장사, 샅벌이와 같은 일용직, 소토지 농사 등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경제활동 실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 조사의 특성 상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조사대상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의 시장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의 장사경험 여부, 주된 수입을 얻은 사적 경제활동 종류를 통해 시장경제활동의 성격 및 내용을 살펴보고, 시장의 발달 추세와 관련해서는 장사든 부업이든 주된 수입을 얻은 사적 경제활동에 종사한 기간과 타인 고용 여부 및 규모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장성을 파악해 본다.

44\_ 북한의 사유화 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로는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참조. 윤인주는 북한이탈주민 1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1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유화 현상을 종합적으로 추적하였다. 다만 설문조사나 면담대상자의 북한이탈 연도가, 직전 연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와 달리,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7년에 걸쳐 있고 설문 내용도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북한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설계 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 1) 상업활동(장사)

### (1) 장사경험(전업과 부업 포함)

장사는 소매나 도매를 포함해 다양한 사적 경제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생활 속에 자리 잡은 시장화의 실태를 평가하는데 장사는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2014년 조사대상자 가운데 장사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9.8%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 조사와 같은 비중이며, 2013년 조사인 75.2%보다는 5.4%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의 증감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조사결과를 종합한다면, 장사경험을 가진 비중이 71.6%로 나타나 장사를 경험한 비중은 대체적으로 70% 정도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1〉 장사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	88	38	126
	69.8	30.2	100.0
2013	100	33	133
	75.2	24.8	100.0
2014	104	45	149
	69.8	30.2	100.0
전체	292	116	408
	71.6	28.4	100.0

남녀 성별에 따른 장사경험을 살펴보면 2014년 조사의 경우 장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남자는 56.0%, 여자는 76.8%를 차지하였다. 2014년 조사를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남자는 18.6% 감소하였고 여자는 1.1%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64.0%, 여자의 경우는 76.6%가 장사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사경험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12.6%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소매장사 등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종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2〉 남녀 성별 장사경험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	남자	33	22	55
		60.0	40.0	100.0
	여자	55	16	71
		77.5	22.5	100.0
2013	남자	44	15	59
		74.6	25.4	100.0
	여자	56	18	74
		75.7	24.3	100.0
2014	남자	28	22	50
		56.0	44.0	100.0
	여자	76	23	99
		76.8	23.2	100.0
전체	남자	105	59	164
		64.0	36.0	100.0
	여자	187	57	244
		76.6	23.4	100.0

당원 여부에 따른 장사경험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당원의 57.1%, 비당원의 71.7%가 장사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당원의 장사경험 비율이 당원보다 14.6%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당원에 비해 당원의 빈도가 낮고 2012~2013년 조사에 비추어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2~2014년 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당원의 경우 64.4%, 비당원의 경우는 72.8%가 장사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장사경험을 가진 비당원이 당원보다 8.4% 높게 나타났으며, 당원보다는 비당원이 상대적으로 장사 등 사적 경제활동에 더 많이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3〉 당원 여부별 장사경험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	당원	10	8	18
		55.6	44.4	100.0
	비당원	77	29	106
		72.6	27.4	100.0
2013	당원	16	4	20
		80.0	20.0	100.0
	비당원	84	29	113
		74.3	25.7	100.0
2014	당원	12	9	21
		57.1	42.9	100.0
	비당원	91	36	127
		71.7	28.3	100.0
전체	당원	38	21	59
		64.4	35.6	100.0
	비당원	252	94	346
		72.8	27.2	100.0

연령대별로 장사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을 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대에서 4.3%, 50대에서 10.1% 상승한 반면 30대에서는 7.3%, 60대에서 66.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조사에서 장사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는 30대로 세대별 응답자의 89.3%가 장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84.6%로 40대가 차지하였다. 50대와 20대가 각각 75.0%와 57.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2014년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와도 같은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30대가 92.5%로 가장 큰 비율을 보인 가운데 40대>50대>20대>60대 순으로 높은 장사경험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장사를 통한 사적 경제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세대는 30대라고 볼 수 있다.

〈표 3-4〉 연령대별 장사 유경험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2	0	0.0	25	56.8	21	91.3	27	79.4	10	76.9	5	41.7
2013	1	33.3	23	53.5	28	96.6	34	89.5	11	68.8	3	100.0
2014	0	0.0	26	57.8	25	89.3	33	84.6	15	78.9	5	33.3
전체	1	16.7	74	56.1	74	92.5	94	84.7	36	75.0	13	41.9

\* 연도별 해당 연령대 응답자 중 장사 유경험자 비율

교육수준별 장사경험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대학(교) 이상 학력수준에서 장사경험자는 7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서는 각각 71.9%와 69.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앞선 조사연도와 비교하면 장사경험자가 대학(교) 이상 학력수준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전문학교 학력수준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가 지닐 수 있는 한계를 감안하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에서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양상이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2012~2014년 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사경험자의 비율이 전문학교 학력수준에서 76.3%로 가장 높고 고등중학교 수준에서 이와 비슷한 75.1%를 보였으며, 대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에서는 57.1%로 전문학교나 고등중학교보다 18~19% 정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학력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장사를 통한 사적 경제활동에 가장 활발하게 참가하는 층은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5〉 교육수준별 장사 유경험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대학(교) 이상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무학	
2012	5	38.5	18	78.3	59	72.0	2	50.0	2	100.0
2013	15	68.2	11	73.3	74	77.9	0	0.0	0	0.0
2014	15	75.0	23	71.9	64	69.6	1	33.3	0	0.0
전체	20	57.1	29	76.3	133	75.1	2	50.0	2	66.7

\* 연도별·교육수준별 응답자 중 장사 유경험자 비율

공식직업별 장사 경험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가정부인 층에서 92.9%로 가장 높고 노동자와 사무원층이 각각 78.3%와 66.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가정부인층에서는 상대적으로 90% 이상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층은 크지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가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수준별 실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가 지닐 수 있는 한계를 감안하면 이러한 양상이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장사경험자 비율이 가정부인층에서 92.2%로 가장 높고, 74.3%를 차지한 노동자층에서 그 다음으로 높으며, 각각 64.9%와 56.0%를 차지한 사무원과 전문가층 다음으로 46.2%를 차지한 농민 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자층의 장사경험자 비율이 농민층보다 28.1%나 높다. 따라서 가정부인들이 장사를 통한 사적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반면 농민들이 가장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표 3-6〉 공식직업별 장사 유경험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학생		군인		가정부인		무직·기타	
2012	33	70.2	6	54.5	3	50.0	6	66.7	3	37.5	1	25.0	13	92.9	5	62.5
2013	32	74.4	1	25.0	9	69.2	6	54.5	3	37.5	4	66.7	20	90.9	4	80.0
2014	36	78.3	5	45.5	12	66.7	2	40.0	3	27.3	3	42.9	26	92.9	10	66.7
전체	101	74.3	12	46.2	24	64.9	14	56.0	9	33.3	8	47.1	59	92.2	19	67.9

\* 연도별·공식직업별 응답자 중 장사 유경험자 비율

이제까지 장사를 통한 사적 경제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당원보다는 비당원이, 연령대로

는 30대가, 교육수준별로는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이, 직업별로는 가정부인과 노동자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장사를 통한 사적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장사(전업)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을 기준으로 장사를 전업으로 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2012년도 조사에서는 11.2%, 2013년도 조사에서는 13.5%로 10%를 상회하였으나 2014년도 조사에서는 4.7%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9.6%로서 1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사 연도에 따라 변동폭이 작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10% 전후가 장사를 전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4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장사를 전업으로 한 사람들의 공식적인 직업을 살펴보면 노동자와 질병 등으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연로보장을 받고 있는 피부양자와 함께 가정부인이나 무직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장사 전업 비율

단위: 명, %

구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학생	군인	외화 별이	장사	가정 부인	무직 기타	전체
2012	47	11	6	9	8	5	3	14	14	8	125
	37.6	8.8	4.8	7.2	6.4	4.0	2.4	11.2	11.2	6.4	100.0
2013	43	4	13	11	8	6	3	18	22	5	133
	32.3	3.0	9.8	8.3	6.0	4.5	2.3	13.5	16.5	3.8	100.0
2014	46	11	18	5	11	7	0	7	28	15	148
	31.1	7.4	12.2	3.4	7.4	4.7	0.0	4.7	18.9	10.1	100.0
전체	136	26	37	25	27	18	6	39	64	28	406
	33.5	6.4	9.1	6.2	6.7	4.4	1.5	9.6	15.8	6.9	100.0

전체적으로 장사를 전업으로 한 사람들의 주된 수입원을 살펴보면 소매장사가 63.2%를 차지하였고 도매장사가 10.5%를 차지하였으며 중국과의 밀거래 등 기타 응답이 10.5%로 나타났다. 또한 장사를 전업으로 한 사람들의 사업용 원부자재나 상품의 국가별 출처를 살펴보면 중국산이 8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북한산은 1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에서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국산 상품을 이용해 소매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8〉 장사(전업) 종사 시 상품 출처

구분	북한	중국	남한	일본	기타	전체
빈도	6	29	0	0	0	35
비율(%)	17.1	82.9	0.0	0.0	0.0	100.0

전체적으로 장사를 전업으로 한 사람들의 사업지속 기간을 보면 절반 이상인 51.4%가 5년 이상 지속한 반면 1년 미만은 10.8%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 장사를 통한 사적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9〉 전업 장사 종사 기간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빈도	0	4	8	6	19	37
비율(%)	0.0	10.8	21.6	16.2	51.4	100.0



한편 장사를 전업으로 한 사람들의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이 17.1%로 1만원 미만의 17.2%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 가운데 대체적으로 30만원 미만이 57.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3-10〉 장사(전업)를 통한 월평균 가구 수입

구분	0원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빈도	3	3	8	6	3	6	6	35
비율(%)	8.6	8.6	22.9	17.1	8.6	17.1	17.1	100.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사를 전업으로 한 경우 소매장사의 비중이 높았으나, 소득수준에서는 소매와 도매 등 업종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소매업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1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까지의 비중이 23.8%와 19.0%로서 다른 수입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0원에서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11〉 장사(전업) 중 소매업 종사자 월평균 가구 수입

구분	0원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빈도	1	3	5	4	2	3	3	21
비율(%)	4.8	14.3	23.8	19.0	9.5	14.3	14.3	100

## 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사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를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면 소매장사, 외화별이, 샷별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되거리장사, 식당이나 상점 임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소매장사와 되거리장사를 합한 유통업이 47.6%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소매장사가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각각 10.9%와 9.5%를 차지한 되거리 장사와 외화별이였으며 7.4%를 차지한 샷별이에 이어 개인편의봉사, 돈장사, 개인(임)가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매장사와 되거리장사를 합한 유통업이 46.4%로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 반면 제조업일 수 있는 개인(임)가공은 3.2%에 불과하다. 이는 사적 경제활동이 여전히 유통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비율상으로는 20.1%를 차지한 기타의 경우는 중국을 상대로 한 밀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소토지 농사나 축산, 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표 3-1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단위: 명, %

구분	소매 장사	개인 편의 봉사	개인 (임) 가공	식당· 상점 임대	퇴거리 장사	외화 벌이	돈 장 사	샅 벌 이	해외 파견	기타	전체
2012	39	5	2	2	11	11	7	4	1	24	106
	36.8	4.7	1.9	1.9	10.4	10.4	6.6	3.8	0.9	22.6	100.0
2013	45	7	5	0	7	14	6	12	2	19	117
	38.5	6.0	4.3	0.0	6.0	12.0	5.1	10.3	1.7	16.2	100.0
2014	40	7	4	4	20	8	4	10	2	27	126
	31.7	5.6	3.2	3.2	15.9	6.3	3.2	7.9	1.6	21.4	100.0
전체	124	19	11	6	38	33	17	26	5	70	349
	35.5	5.4	3.2	1.7	10.9	9.5	4.9	7.4	1.4	20.1	10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한 기간을 살펴보면 2014년 조사의 경우 3년 이상 종사한 비율은 72.4%로 2013년 조사의 68.1% 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개월 이상에서 3년 미만의 비율은 2013년 24.4%에서 2014년 19.5%로 다소 줄어들었다. 2012년~2014년 조사를 비교하면 1년 이상~3년 미만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3년 이상~5년 미만이나 5년 이상은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3년 이상이 64.3%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년 미만은 16.2%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이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해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다만 이 또한 북한 이탈주민 조사가 지닌 한계를 감안하여 이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1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단위: 명,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2012	16	6	29	16	36	103
	15.5	5.8	28.2	15.5	35.0	100.0
2013	9	9	20	19	62	119
	7.6	7.6	16.8	16.0	52.1	100.0
2014	10	6	18	23	66	123
	8.1	4.9	14.6	18.7	53.7	100.0
전체	35	21	67	58	164	345
	10.1	6.1	19.4	16.8	47.5	10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6개월미만의 비중이 각각 16.5%와 13.3%로써 대체로 15% 전후의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6개월 미만의 비중이 각각 4.0%와 5.3%로써 5% 전후의 수준을 보여 6개월 미만에서는 20대와 30대가 40대와 50대보다 10% 정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는 20대, 30대, 40대, 50대의 비중이 각각 19.4%, 20.0%, 20.8%, 18.4%로 20% 전후의 수준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5년 이상에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3.0%와 37.3%로서 35% 전후로 나타난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57.4%와 63.2%로 60% 전후의 수준을 보여 주었고 특히 60대 이상은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72.0%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한 기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3-14〉 연령대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2012~2014)

단위: 명,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10대	0	0	0	1	2	3
	0.0	0.0	0.0	33.3	66.7	100.0
20대	17	9	20	23	34	103
	16.5	8.7	19.4	22.3	33.0	100.0
30대	10	6	15	16	28	75
	13.3	8.0	20.0	21.3	37.3	100.0
40대	4	5	21	13	58	101
	4.0	5.0	20.8	12.9	57.4	100.0
50대	2	1	7	4	24	38
	5.3	2.6	18.4	10.5	63.2	100.0
60대 이상	2	0	4	1	18	25
	8.0	0.0	16.0	4.0	72.0	100.0
전체	35	21	67	58	164	345
	10.1	6.1	19.4	16.8	47.5	10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먼저 6개월 미만 의 경우 되거리장사와 돈장사가 각각 16.7%와 23.5%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외화벌이도 12.1%로 두 자리수의 비율을 나타냈다.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경우에는 외화벌이가 15.2%

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년 이상~3년 미만에서는 돈장사가 41.2%로 가장 높은 가운데 식당·상점 임대를 통한 사업이나 되거리 장사도 30%대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우에는 식당·상점 임대를 통한 사업이 50.0%로 절반의 비율을 보인 가운데 개인편의 봉사나 외화벌이도 상대적으로 높은 20%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5년 이상의 경우에는 샅별이가 6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개인(임)가공과 해외과견도 각각 63.7%와 60.0%로 6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개인편의 봉사와 소매장사도 각각 57.9%와 50.0%로 절반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외화벌이와 되거리장사도 비율이 각각 39.4%와 33.3%로 30%대이기는 하지만 동일업종 내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외과견이 80.0%로 가장 높고 개인편의 봉사와 샅별이, 개인(임)가공이 각각 79.0%와 76.9%, 72.7%로 70% 이상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식당 상점 임대를 통한 사업과 외화벌이, 소매장사가 각각 66.7%와 63.6%, 62.1%로 60%대를 보인 가운데 도매업인 되거리장사는 47.2%로 절반을 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돈장사의 경우는 3년 이상 유지 비율이 29.4%로 부침이 가장 심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표 3-15〉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종사기간(2012~2014)

단위: 명,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소매장사	12	8	27	15	62	124
	9.7	6.5	21.8	12.1	50.0	100.0
개인 편의 봉사	2	1	1	4	11	19
	10.5	5.3	5.3	21.1	57.9	100.0
개인 (임)가공	1	0	2	1	7	11
	9.1	0.0	18.2	9.1	63.6	100.0
식당·상점 임대	0	0	2	3	1	6
	0.0	0.0	33.3	50.0	16.7	100.0
퇴거리 장사	6	2	11	5	12	36
	16.7	5.6	30.6	13.9	33.3	100.0
외화벌이	4	5	3	8	13	33
	12.1	15.2	9.1	24.2	39.4	100.0
돈장사	4	1	7	0	5	17
	23.5	5.9	41.2	0.0	29.4	100.0
삿벌이	2	1	3	3	17	26
	7.7	3.8	11.5	11.5	65.4	100.0
해외 파견	1	0	0	1	3	5
	20.0	0.0	0.0	20.0	60.0	100.0
기타	3	3	9	17	32	64
	4.7	4.7	14.1	26.6	50.0	100.0
전체	35	21	65	57	163	341
	10.3	6.2	19.1	16.7	47.8	100.0

### 3) 타인고용

임노동관계의 발전과 사업규모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타인고용 여부와 규모, 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타인고용 여부를 살펴 보면 2014년 조사의 경우 타인을 고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6%로 2013년 조사보다 5.8% 낮게 나타났다. 2012~2014년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대체로 20% 중후반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평균 26.0%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적 경제활동에 종사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의 1/4 정도만 타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적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개인활동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6〉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고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	25	75	100
	25.0	75.0	100.0
2013	35	84	119
	29.4	70.6	100.0
2014	29	94	123
	23.6	76.4	100.0
전체	89	253	342
	26.0	74.0	10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로 타인고용여부를 살펴보면, 외화벌이의 경우 75.8%가 타인을 고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고, 그 다음은 60.0%를 보인 해외파견이 차지하였으며 되거리장사의 경우도 타인을 고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개인편의 봉사나 돈장사의 경우 20% 초반대를 보였고, 소매장사나 식당·상점 임대를 통한 사적 경제 활동은 15% 전후로 나타났으며 개인(임)가공의 경우는 타인을 고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무한 샷별이를 제외하면 10% 이하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타인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외화별이 계통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7〉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타인고용 비율

단위: 명, %

구분	소매장사		개인편의 봉사		개인(임)가공		식당·상점 임대		되거리장사	
	2012	4	10.5	0	0.0	0	0.0	0	0.0	6
2013	10	22.2	2	28.6	1	20.0	0	0.0	2	28.6
2014	4	10.0	2	28.6	0	0.0	1	25.0	6	30.0
전체	18	14.6	4	21.1	1	9.1	1	16.7	14	36.8
구분	외화별이		돈장사		샷별이		해외 파견		기타	
2012	9	81.8	0	0.0	0	0.0	1	100.0	5	27.8
2013	9	64.3	2	33.3	0	0.0	1	50.0	7	36.8
2014	7	87.5	2	50.0	0	0.0	1	50.0	6	26.1
전체	25	75.8	4	23.5	0	0.0	3	60.0	18	3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타인을 고용한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5명 미만과 5명 이상~10명 미

만이 각각 31.2%와 4.4% 줄어든 반면 10명 이상~15명 미만은 24.7%, 15명 이상~20명 미만이 3.7%, 20명 이상이 7.1% 늘어났다. 2012~2014년을 비교하면 5명 미만의 경우 연속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20명 이상의 경우는 크지는 않지만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조사의 한계와 특히 낮은 빈도를 고려하면 향후 조사결과들과 비교하면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영세 사업자가 감소하거나 특히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가운데 기존의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을 가능성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18〉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고용 규모

단위: 명, %

구분	5명 미만	5명 이상~10명 미만	10명 이상~15명 미만	15명 이상~20명 미만	20명 이상	전체
	2012	14	2	3	0	
	66.7	9.5	14.3	0.0	9.5	100.0
2013	20	8	3	0	4	35
	57.1	22.9	8.6	0.0	11.4	100.0
2014	7	5	9	1	5	27
	25.9	18.5	33.3	3.7	18.5	100.0
전체	41	15	15	1	11	83
	49.4	18.1	18.1	1.2	13.3	10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을 고용한 기간을 보면 전반적으로 응답 빈도가 낮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2014년 조

사의 경우 2013년에 비해 1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감소하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과 1년 이상은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2012~2014년을 비교하면 1개월 미만은 20% 전후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나 1년 이상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6개월 이상과 6개월 미만이 각각 51.3%와 48.7%로 절반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9〉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고용 기간

단위: 명,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년 이상	전체
2012	4	3	3	8	0	18
	22.2	16.7	16.7	44.4	0.0	100.0
2013	8	4	4	10	8	34
	23.5	11.8	11.8	29.4	23.5	100.0
2014	5	7	0	7	7	26
	19.2	26.9	0.0	26.9	26.9	100.0
전체	17	14	7	25	15	78
	21.8	17.9	9.0	32.1	19.2	100.0

#### 4) 주된 수입원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애로사항과 전체 수입 중 뇌물 비중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애로사항 1순위를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각종 단속이나 뇌물제공이 2013년도 조사보다 29.2% 증가한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2013년도 조사보다 26.1% 감소한 사업자금마련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2년~2014년 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자금마련 문제가 41.3%로 가장 크고 각종 단속이나 뇌물제공, 상품이나 원자재 확보, 열악한 철도나 도로사정이 10% 초반대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상품이나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비율이 2012년 16.2%에서 2014년 5.7%로 떨어지고 있는 점은 내부 자원이용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기에 향후 보다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2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업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상품·원자재 확보	판매경쟁	도로·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기타	전체
2012	6	47	16	6	7	7	10	0	99
	6.1	47.5	16.2	6.1	7.1	7.1	10.1	0.0	100.0
2013	10	62	13	4	18	10	2	0	119
	8.4	52.1	10.9	3.4	15.1	8.4	1.7	0.0	100.0
2014	6	32	7	6	10	16	38	8	123
	4.9	26.0	5.7	4.9	8.1	13.0	30.9	6.5	100.0
전체	22	141	36	16	35	33	50	8	341
	6.5	41.3	10.6	4.7	10.3	9.7	14.7	2.3	10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겪었던 애로사항 중 2순위를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각종 단속과 뇌물제공이 2013년 조사보다 28.2%나 떨어졌으나 29.9%로 여전히 가장 높고, 열악한 도로나 철도사정, 상품이나 원부자재 확보, 사업자금마련이 2013년 조사보다 증가하여 10% 초중반대를 보이면서 그 다음을 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순위에서는 각종 단속이나 뇌물제공이 49.0%로 가장 높고 열악한 도로나 철도사정, 상품이나 원자재 확보, 열악한 전기사정이 10% 초반대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아울러 2012년~2014년 조사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열악한 도로나 철도사정에 대한 지적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시장경제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면서 물류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표 3-21〉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애로사항(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업수원부족	사업자금마련	상품·원자재 확보	판매경쟁	도로·철도사정	전기사정	단속 뇌물	기타	전체
2012	0	2	8	2	7	7	47	3	76
	0.0	2.6	10.5	2.6	9.2	9.2	61.8	3.9	100.0
2013	0	1	11	8	13	12	68	4	117
	0.0	0.9	9.4	6.8	11.1	10.3	58.1	3.4	100.0
2014	4	14	17	8	17	12	32	3	107
	3.7	13.1	15.9	7.5	15.9	11.2	29.9	2.8	100.0
전체	4	17	36	18	37	31	147	10	300
	1.3	5.7	12.0	6.0	12.3	10.3	49.0	3.3	100.0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의 조사를 종합해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애로사항 1순위를 살펴보면 소매나 개인편의 봉사, 식당이나 상점 임대와 운영, 돈장사 등에서는 모두 사업자금 마련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비해 개인(임)가공의 경우는 전기사정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산부문일 수 있는 (임)가공의 경우 열악한 전기사정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한편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업종 간에 다소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개인편의 봉사의 경우 전기사정을 든 비율이 36.8%이고 돈장사와 되거리장사의 경우는 각종 단속이나 뇌물제공을 든 비율이 각각 35.3%와 28.9%였으며 외화벌이의 경우 사업자금마련과 열악한 도로나 철도사정이 공히 27.3%였다.

〈표 3-2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업수원부족	사업자금마련	상품·원자재 확보	판매경쟁	도로·철도사정	전기사정	단속 뇌물	기타	전체
소매장사	9	71	15	2	10	3	12	0	122
	7.4	58.2	12.3	1.6	8.2	2.5	9.8	0.0	100.0
개인편의 봉사	0	9	1	0	1	7	1	0	19
	0.0	47.4	5.3	0.0	5.3	36.8	5.3	0.0	100.0
개인(임)가공	0	2	1	1	1	5	1	0	11
	0.0	18.2	9.1	9.1	9.1	45.5	9.1	0.0	100.0
식당·상점 임대	0	3	1	1	1	0	0	0	6
	0.0	50.0	16.7	16.7	16.7	0.0	0.0	0.0	100.0

구분	사업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상품·원자재 확보	판매경쟁	도로·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기타	전체
퇴거리 장사	1	13	2	4	4	2	11	1	38
	2.6	34.2	5.3	10.5	10.5	5.3	28.9	2.6	100.0
외화 벌이	2	9	4	5	9	0	4	0	33
	6.1	27.3	12.1	15.2	27.3	0.0	12.1	0.0	100.0
돈장사	0	9	2	0	0	0	6	0	17
	0.0	52.9	11.8	0.0	0.0	0.0	35.3	0.0	100.0
삿벌이	4	7	3	1	1	3	4	3	26
	15.4	26.9	11.5	3.8	3.8	11.5	15.4	11.5	100.0
해외 파견	1	1	0	0	1	2	0	0	5
	20.0	20.0	0.0	0.0	20.0	40.0	0.0	0.0	100.0
기타	5	15	6	2	7	10	11	4	60
	8.3	25.0	10.0	3.3	11.7	16.7	18.3	6.7	100.0
전체	22	139	35	16	35	32	50	8	337
	6.5	41.2	10.4	4.7	10.4	9.5	14.8	2.4	100.0

2014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2년~2014년 조사 전체에서도 사업 자금 마련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애로사항은 각종 단속과 뇌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 중에서 뇌물이 차지한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조사의 경우 전년에 비해 전혀 없다는 응답과 10% 초과에서 30% 이하, 50% 이상이라는 응답이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10%이하라는 응답과 40% 초과에서 50% 이하라는 응답은 약간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뇌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4%였

고, 10% 이하와 20% 이하, 30% 이하가 대체로 20%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여 30% 이하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응답이 60.7% 차지하였으며, 50% 이상을 제공했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표 3-23〉 전체 수입 중 뇌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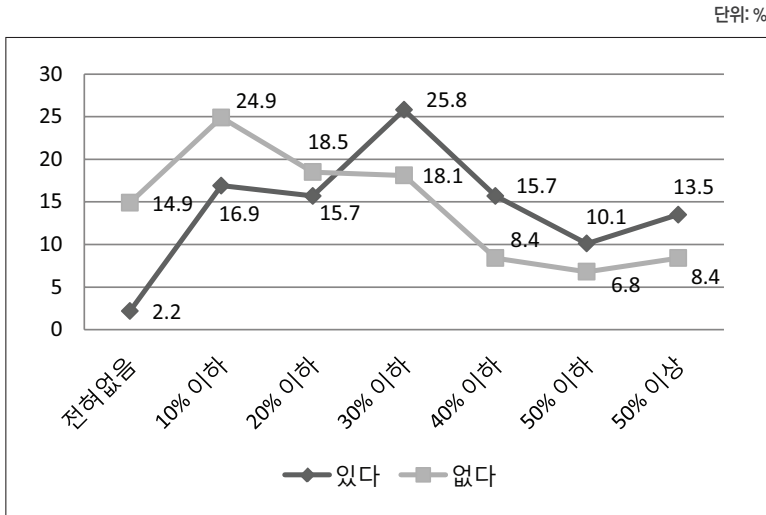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혀 없음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50% 이상	전체
2012	17	30	20	23	12	6	14	122
	13.9	24.6	16.4	18.9	9.8	4.9	11.5	100.0
2013	13	35	24	23	13	14	9	131
	9.9	26.7	18.3	17.6	9.9	10.7	6.9	100.0
2014	24	26	30	33	14	7	15	149
	16.1	17.4	20.1	22.1	9.4	4.7	10.1	100.0
전체	54	91	74	79	39	27	38	402
	13.4	22.6	18.4	19.7	9.7	6.7	9.5	10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을 고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 수입에서 뇌물이 차지한 비중을 살펴보면 20% 이하까지는 타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제공한 뇌물의 비중이 타인을 고용한 경우보다 컸지만 30% 이상에서는 타인을 고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 자체뿐 아니라 타인고용이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타인고용과 그를 통한 사업의 확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과 비용을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고용 여부별 뇌물 비중



### 5) 사업용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할 당시 사업용 원부자재와 상품의 출처를 살펴보면 2014년 조사의 경우 2013년 조사에 비해 북한산의 비중이 약간 감소하고 중국산이 약간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산의 비중이 29.8%이고 중국산의 비중이 66.5%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연도에 따라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산의 비중이 60% 중반대를 차지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원부자재나 상품의 국산화를 이룩해야 한다며 수입병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sup>45</sup> 실제 중국산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산 비중의 증가는 북한 내부에서 자원이용의 효

율성이 증가하고 경제가 회생되는 과정에서 수입을 대체할 생산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향후 변화가 주목되는 사항이다.

〈표 3-24〉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사업용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

구분	북한	중국	남한	일본	기타	전체
2012	20	65	4	0	0	89
	22.5	73.0	4.5	0.0	0.0	100.0
2013	42	74	2	1	0	119
	35.3	62.2	1.7	0.8	0.0	100.0
2014	34	75	3	1	1	114
	29.8	65.8	2.6	0.9	0.9	100.0
전체	96	214	9	2	1	322
	29.8	66.5	2.8	0.6	0.3	100.0

2012년~2014년 조사를 종합해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로 사업용 원부자재나 상품을 출처를 살펴보면 북한산의 경우 외화벌이가 56.3%로 절반을 넘었고 그 다음은 되거리장사가 38.2%를 차지하였다. 중국산의 경우 개인(임)가공이 8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매장사와 개인편의 봉사가 각각 74.8%와 73.7%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으며 싹별이와 돈장사, 식당과 상점 임대 및 운영이 각각 66.7%, 62.5%와 60.0%로 60%를 상회하였고 되거리 장사도 58.8%로 거의 60%에 근접하였다. 한편 돈장사의 경우 중국산에 이어 남한산이 그 다음으로 큰

45\_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조국해방 일흔 둘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 둘에 즈음하여," 『조선중앙통신』, 2015년 2월 12일 등 참조.

25.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한산의 비중이 12.5%에 불과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돈장사를 할 정도의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표 3-25〉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사업용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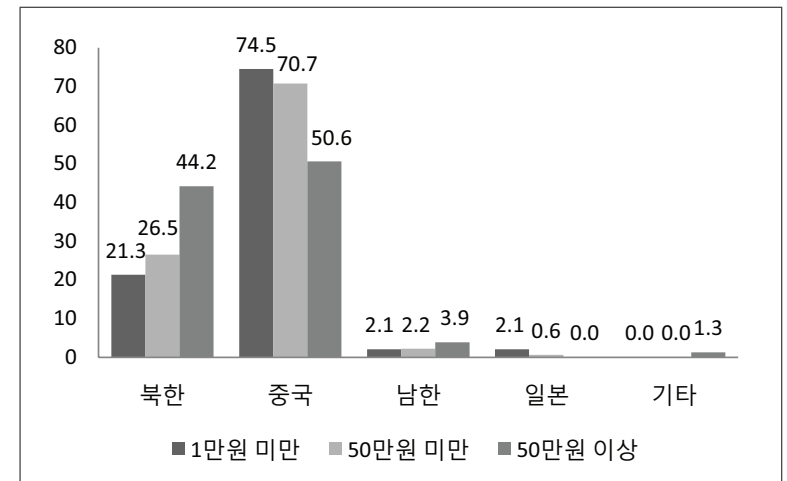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북한	중국	남한	일본	기타	전체
소매장사	29	89	1	0	0	119
	24.4	74.8	0.8	0.0	0.0	100.0
개인편의 봉사	4	14	1	0	0	19
	21.1	73.7	5.3	0.0	0.0	100.0
개인 (임)가공	2	8	0	0	0	10
	20.0	80.0	0.0	0.0	0.0	100.0
식당·상점 임대	1	3	1	0	0	5
	20.0	60.0	20.0	0.0	0.0	100.0
되거리장사	13	20	1	0	0	34
	38.2	58.8	2.9	0.0	0.0	100.0
외화벌이	18	14	0	0	0	32
	56.3	43.8	0.0	0.0	0.0	100.0
돈장사	2	10	4	0	0	16
	12.5	62.5	25.0	0.0	0.0	100.0
삿벌이	7	16	0	0	1	24
	29.2	66.7	0.0	0.0	4.2	100.0
해외 파견	1	4	0	0	0	5
	20.0	80.0	0.0	0.0	0.0	100.0
기타	18	33	1	2	0	54
	33.3	61.1	1.9	3.7	0.0	100.0
전체	95	211	9	2	1	318
	29.9	66.4	2.8	0.6	0.3	100.0

2012년~2014년 조사를 종합해서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수입에 따른 사업용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를 살펴보면 북한산의 비중이 월 평균 가구 수입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44.2%인 반면 월 평균 가구 수입이 1만원 미만인 경우는 21.3%로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산의 경우를 보면 월 평균 가구 수입이 1만원 미만인 경우 74.5%인 반면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50.6%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수입이 최상층인 50만원 이상의 경우 1만원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산의 비중이 큰 것이다. 이는 외화벌이나 되거리장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경우 북한산을 사용하는 비중이 큰 것과도 관련될 수 있다.

〈그림 3-2〉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수입별 사업용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

단위: %



### 3. 소득 분화

#### 1) 가구 소득 분화

먼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급받은 가구 생활비의 총합을 살펴 보면 2014년 조사의 경우 2013년에 비해 하나도 받지 못한 비중이 8.6% 증가한 55.1%로 절반을 넘었으며 1천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미세하지만 3.8% 증가하였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37.3%에서 55.1%로 17.8%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경제의 공식부문이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개선완성을 위한 개혁조치 등 제도적 변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관리방법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지면서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비나 협동농장 농장원들의 결산분배 몫의 격차도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 내부뿐 아니라 공장·기업소 간이나 협동농장 간에 더욱 커지게 되었다.<sup>46</sup> 당과 국가적인 지원 하에 잘 운영되는 공장·기업소의 경우

46\_ 김지영,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 『조선신보』, 2013년 12월 24일; 김지영,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현장레포트(상): 생산효율에 대한 추구와 새 품종 개발," 『조선신보』, 2013년 12월 24일; 김지영,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현장레포트(하): 농민들의 의식개조와 증산의 실현," 『조선신보』, 2013년 12월 25일; 리태호, "경제관리개선/조치실시 1년, 생산현장의 변화," 『조선신보』, 2014년 4월 2일; 리태호, "협동벌에 부는 혁신의 바람(상): 증산의 원동력은 농장원의 열의," 『조선신보』, 2014년 5월 3일; 김지영, "병진로선에 기초한 경제건설/사회과학원 연구사가 말하는 현장의 변화," 『조선신보』, 2015년 1월 26일 등 참조. 상기 보도에 따르면 손꼽히는 단위인 326전선공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사업실적에 따라 월급이 종전 국가기준의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지방산업 공장에서도 이전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락원기계'처럼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단위의 인상폭이 크다고 한다.

는 높은 생활비를 지급받지만 그렇지 못한 공장·기업소의 경우는 생활비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3천원 미만이 75.2%인 반면 작은 비중이지만 10만원 이상도 3.1%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 이와 같은 경제관리개선 조치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표 3-26〉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월평균 가구 생활비 총합

단위: 명, %

구분	0원	1천원 미만	3천원 미만	5천원 미만	1만원 미만	5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전체
2012	41	3	23	16	8	9	5	2	3	110
	37.3	2.7	20.9	14.5	7.3	8.2	4.5	1.8	2.7	100.0
2013	60	2	38	14	6	2	1	2	4	129
	46.5	1.6	29.5	10.9	4.7	1.6	0.8	1.6	3.1	100.0
2014	81	8	34	10	7	3	3	0	1	147
	55.1	5.4	23.1	6.8	4.8	2.0	2.0	0.0	0.7	100.0
전체	182	13	95	40	21	14	9	4	8	386
	47.2	3.4	24.6	10.4	5.4	3.6	2.3	1.0	2.1	100.0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번 월평균 가구 수입을 보면 수입이 하나도 없었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조사의 경우 수입이 없다는 응답은 2013년의 12.1%와 비슷한 수준인 12.4%로 나타났으나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18.1%에서 12.4%로 5.7% 감소하였다. 한편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2013년 19.7%보다 5.9% 감소한 13.8%였으나 2012년 4.8%와 비교하

면 9.0%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하위인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응답이 13.9%를 차지하였고 최상위인 100만원 이상이 13.4%를 차지하였다.

〈표 3-27〉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 수입

단위: 명, %

구분	0원	1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2012	19	15	16	32	9	9	5	105
	18.1	14.3	15.2	30.5	8.6	8.6	4.8	100.0
2013	16	5	19	33	19	14	26	132
	12.1	3.8	14.4	25.0	14.4	10.6	19.7	100.0
2014	18	8	23	40	15	21	20	145
	12.4	5.5	15.9	27.6	10.3	14.5	13.8	100.0
전체	53	28	58	105	43	44	51	382
	13.9	7.3	15.2	27.5	11.3	11.5	13.4	100.0

이러한 양상의 배경 중 하나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에 따른 소득분화가 존재할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6개월 미만에서는 10만원 미만이 42.8%인 반면 30만원 이상은 25.7%에 불과하지만, 5년 이상에서는 10만원 미만이 31.9%인 반면 30만원 이상은 43.4%로 나타났다. 종사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사회 전체로 일반화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사적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들이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환경 하에서도 오랫동안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

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경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에서 3년 미만은 줄어들고 3년 이상은 늘어나는 양상과도 관련될 수 있어 향후의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28〉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별 월평균 가구 수입(장사나 부업)

단위: 명, %

구분	0원	1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6개월 미만	6	2	7	11	2	5	2	35
	17.1	5.7	20.0	31.4	5.7	14.3	5.7	100.0
1년 미만	2	2	5	6	1	2	1	19
	10.5	10.5	26.3	31.6	5.3	10.5	5.3	100.0
3년 미만	6	4	10	22	7	5	6	60
	10.0	6.7	16.7	36.7	11.7	8.3	10.0	100.0
5년 미만	4	2	8	18	7	9	7	55
	7.3	3.6	14.5	32.7	12.7	16.4	12.7	100.0
5년 이상	10	15	25	39	21	18	29	157
	6.4	9.6	15.9	24.8	13.4	11.5	18.5	100.0
전체	28	25	55	96	38	39	45	326
	8.6	7.7	16.9	29.4	11.7	12.0	13.8	100.0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분화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과 부유층을 추정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받은 월평균 가구 생활비와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수입을 아래와 같이 재분류하면 먼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에서는 하나도 받지 못한 비율이 46.7%이고 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10.0%에 달한다. 이를 북한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서 10가구 중 5가구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는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위 1가구 정도는 1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다소 무리하게 해석하면, 북한에서 공식적인 경제부문의 절반 정도가 정상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반면 40% 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위 10% 정도는 운영이 활성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인 공식생활비 이외에 인센티브 성격의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장사나 부업 등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월평균 가구수입을 5분위 소득구간에 근접하게 재분류하면 최하위 20%의 경우 월평균 1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는 반면 최상위 20% 정도는 월평균 5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로 월평균 1만원 이상에서 50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29〉 국가지급 생활비 및 장사부업 수입(5분위) 재분류(월평균 가구소득)

국가 지급 월평균 가구 생활비			장사·부업 통한 월평균 가구수입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0원	182	46.7	1만원 미만	81	21.2
1만원 미만	169	43.3	50만원 미만	206	53.9
1만원 이상	39	10.0	50만원 이상	95	24.9
합계	390	100.0	합계	382	100.0

재분류한 가구 수입을 2012년~2014년 간 조사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국가가 지급한 생활비의 경우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가운데 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

은 2012년 17.3%에서 2014년 4.8%로 꾸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의 경우 최하위층인 1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2년 32.4%였으나 2014년 17.9%로 줄어든 반면 최상위층인 50만원 이상은 2012년 13.3%에서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30.3%와 28.3%를 기록하여 2012년보다 증가한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중하-중간-중상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1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경우는 2012년 54.3%에서 2013년과 2014년 모두 53.8%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하위층이나 최상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지급 생활비의 현실적 의미가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장사나 부업을 통해 높은 수입을 얻고 있는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표 3-30〉 국가지급 생활비와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수입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국가지급 생활비				장사나 부업 수입			
	0원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소계	1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소계
2012	41	50	19	110	34	57	14	105
	37.3	45.5	17.3	100.0	32.4	54.3	13.3	100.0
2013	60	60	13	133	21	71	40	132
	45.1	45.1	9.8	100.0	15.9	53.8	30.3	100.0
2014	81	59	7	147	26	78	41	145
	55.1	40.1	4.8	100.0	17.9	53.8	28.3	100.0
전체	182	169	39	390	81	206	95	382
	46.7	43.3	10.0	100.0	21.2	53.9	24.9	100.0

2012년~2014년 조사를 합하여 국가가 지급한 월평균 가구 생활비와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국가지급 생활비나 장사 또는 부업을 통해 일정하게 수입을 얻지 못한 비율이 전체의 6.2%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다. 한편 소득이 없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국가가 지급한 생활비든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이든 월평균 가구소득이 1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8%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들이 북한을 벗어나기 직전 연도인 2011년~2013년 간 평양지역을 기준으로 쌀 1kg의 가격이 1,500원(2011년 4월 5일~11일)에서 6,950원(2013년 3월 28일~4월 3일) 정도였음을 감안하면,<sup>47</sup> 이들이 사실상 북한의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지급 생활비와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을 교차하여 살펴보면 공장·기업소나 기관 등을 통해 국가가 지급한 생활비보다 장사나 부업을 통해 얻은 수입이 더 많은 경우가 (최소한) 대략 78.1% 정도를 차지한다.<sup>48</sup> 이는 조사대상자의 80% 정도가 공식적인 수입보다는 장사나 부업과 같은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사의 특성상 북한사회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사적 경제활동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시사하며 특히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 공식 경제부문보다는 사적 경제활동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31〉 경제적 취약계층 추정(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

구분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							전체	
	0원	1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국가 지급 생활비	0원	23	11	22	45	23	19	31	174
		6.2	3.0	5.9	12.1	6.2	5.1	8.4	46.9
	1만원 미만	17	15	28	44	18	23	16	161
		4.6	4.0	7.5	11.9	4.9	6.2	4.3	43.4
	1만원 이상	11	2	5	11	2	2	3	36
	3.0	0.5	1.3	3.0	0.5	0.5	0.8	9.7	
전체		51	28	55	100	43	44	50	371
		13.7	7.5	14.8	27.0	11.6	11.9	13.5	100.0

47\_ “北장마당 동향,” DailyNK(온라인),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48\_ 조사와 응답의 특성상 조사대상자마다 개별적으로 국가지급 생활비와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을 비교하여 소득 구성 비율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지급 월평균 생활비와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을 동일한 구간으로 분류한 다음 교차 표를 작성하고 국가지급 생활비보다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이 더 많은 경우(짙은 색 부분)를 합한 소계 264명을 유효한 전체 빈도인 총계 338명으로 나누었다.

〈표 3-32〉 가구별 월평균 국가지급 생활비와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 비교 (2012~2014)

단위: 명

구분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 수입									소계	총계	
	0원	1천원 미만	3천원 미만	5천원 미만	1만원 미만	5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국가 지급 월평균 가구 생활비	0원	22	6	4	2	1	5	12	14	85	129	151
	1천원 미만	4	2	1	0	0	1	0	1	3	6	12
	3천원 미만	10	5	0	0	3	9	4	13	44	73	88
	5천원 미만	3	1	0	1	0	6	2	6	15	29	34
	1만원 미만	0	2	0	0	0	1	2	1	12	16	18
	5만원 미만	4	0	1	1	0	2	0	3	3	6	14
	10만원 미만	2	0	0	0	0	2	0	3	2	5	9
	15만원 미만	1	0	0	0	0	0	0	3	0	0	4
	15만원 이상	4	0	0	0	0	0	0	0	4	0	8
총계	50	16	6	4	4	26	20	44	168	264	338	

2012년~2014년 조사를 종합하여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별로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먼저 소매장사의 경우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구간이 3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으로 19.5%를 차지하였다. 개인편의 봉사의 경우는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44.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개인(임)가공의 경우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30.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식당이나 상점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50.0%로 가장 큰 비율을 보였으며 되거리 장사의 경우도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36.1%로 가장 큰 가운데 100만원 이상도 27.8%로 1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모든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화벌이의 경우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21.9%로 가장 높은 가운데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나 100만원 이상이 모두 18.8%를 기록하여 30만원 이상의 비율이 59.5%로 나타났다. 돈장사의 경우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이 모두 25.0%로 나타났고 샷벌이의 경우는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과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모두 23.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해외파견의 경우 빈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겠지만 수입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응답과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모두 40.0%였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나머지 20.0%를 차지하였다. 이는 해외에 파견된다고 해도 반드시 높은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기타 범주에서는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24.2%로 가장 큰 가운데 100만원 이상이 22.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기타의 경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은 경우는 밀수나 이산가족 찾기 등 중국과의 거래가 가장 많고 농업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3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월평균 가구 수입(장사나 부업)

단위: 명, %

구분	0원	1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소매장사	6	11	23	42	16	12	8	118
	5.1	9.3	19.5	35.6	13.6	10.2	6.8	100.0
개인 편의 봉사	3	1	2	8	2	1	1	18
	16.7	5.6	11.1	44.4	11.1	5.6	5.6	100.0
개인 (임)가공	1	1	3	2	1	2	0	10
	10.0	10.0	30.0	20.0	10.0	20.0	0.0	100.0
식당· 상점 임대	1	0	0	3	1	1	0	6
	16.7	0.0	0.0	50.0	16.7	16.7	0.0	100.0
퇴거리장사	3	1	5	13	3	1	10	36
	8.3	2.8	13.9	36.1	8.3	2.8	27.8	100.0
외화벌이	1	3	5	4	6	7	6	32
	3.1	9.4	15.6	12.5	18.8	21.9	18.8	100.0
돈장사	1	1	1	4	1	4	4	16
	6.3	6.3	6.3	25.0	6.3	25.0	25.0	100.0
샷벌이	3	3	4	6	6	2	2	26
	11.5	11.5	15.4	23.1	23.1	7.7	7.7	100.0
해외 파견	2	0	2	0	0	1	0	5
	40.0	0.0	40.0	0.0	0.0	20.0	0.0	100.0
기타	8	4	10	15	2	9	14	62
	12.9	6.5	16.1	24.2	3.2	14.5	22.6	100.0
전체	29	25	55	97	38	40	45	329
	8.8	7.6	16.7	29.5	11.6	12.2	13.7	100.0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 수입을 5분위에 근접하게 재분류했을 때 최상위에 속하는 5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은 비율을 보면, 기타 범주를 제외하고, 돈장사가 50.0%로 가장 크고 외화벌이가 40.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퇴거리 장사가 30.6%로 세 번째를 차지하면서 전체의 25.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개인(임)가공과 해외파견, 소매장사, 식당이나 상점 임대 및 운영, 샷벌이, 개인편의 봉사는 20% 이하로서 전체 25.9%보다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북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sup>49</sup> 주택 시장과 관련하여 가구 수입에 따른 주택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국가지급 생활비를 기준으로 생활비가 커질수록 국가배정 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자가구입이나 자가건축 비율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장사나 부업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늘어날수록 자가구입과 자가건축의 비율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 수입원과 크기에 따라 주택마련 방법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9\_ 김석진, "2014년 북한 사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월호, pp. 23~24.



〈표 3-34〉 가구 수입별 주택마련 방법

단위: 명, %

구분		국가 배정	자가 구입	자가 건축	상속	인수	전체
국가지급 월평균 가구 생활비	0원	33	114	14	16	2	179
		18.4	63.7	7.8	8.9	1.1	100.0
	1만원 미만	40	85	14	24	4	167
		24.0	50.9	8.4	14.4	2.4	100.0
1만원 이상	12	16	2	6	2	38	
	31.6	42.1	5.3	15.8	5.3	100.0	
장사·부업 통한 월평균 가구 수입	1만원 미만	32	34	6	6	2	80
		40.0	42.5	7.5	7.5	2.5	100.0
	50만원 미만	37	110	18	34	6	205
		18.0	53.7	8.8	16.6	2.9	100.0
	50만원 이상	11	66	8	8	0	93
		11.8	71.0	8.6	8.6	0.0	100.0

## 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이 시기별로 자신의 생활수준을 인식한 양상을 보면 2000년 이전과 비교하여 탈북 직전에 자신의 생활수준이 상층이라는 인식은 11.3%에서 4.7%로, 하층이라는 인식은 각각 42.8%에서 32.7%로 줄어든 반면 중층이라는 인식은 각각 46.0%에서 62.6%로 늘어났다. 상층과 하층은 줄어든 대신 중층이었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탈북 직전인 2011년~2013년에 하층이었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중층이었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실제로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35〉 시기별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전체
1994~1999	45	184	171	400
	11.3	46.0	42.8	100.0
2000~2004	28	209	164	401
	7.0	52.1	40.9	100.0
2005~2010	20	169	89	278
	7.2	60.8	32.0	100.0
2011~2013	19	253	132	404
	4.7	62.6	32.7	100.0

\* 2005~2010년 기간에 대해서는 2013~2014년에만 조사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먼저 이웃과 비교한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훨씬 또는 약간 상위에 있었다는 응답은 2012년 조사의 41.3%에서 2014년 47.0%로 약간 증가한 반면 약간 또는 훨씬 하위에 있었다는 응답은 2012년 조사의 26.2%에서 2014년 20.1%로 약간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012년 32.5%에서 2014년 32.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또는 약간 상위에 있었다는 응답이 44.8%이고 비슷하다는 응답이 31.6%로서 76.4%가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해 이웃보다 나쁘지 않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이웃과의 생활수준 비교 인식

단위: 명, %

구분	훨씬 상위	약간 상위	약간 하위	훨씬 하위	비슷	전체
2012	12	40	17	16	41	126
	9.5	31.7	13.5	12.7	32.5	100.0
2013	12	49	18	15	39	133
	9.0	36.8	13.5	11.3	29.3	100.0
2014	12	58	16	14	49	149
	8.1	38.9	10.7	9.4	32.9	100.0
전체	36	147	51	45	129	408
	8.8	36.0	12.5	11.0	31.6	100.0

친인척과 비교한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훨씬 또는 약간 상위에 있었다는 응답이 2012년 37.6%에서 2014년 40.8%로 나타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약간 또는 훨씬 하위에 있었다는 응답도 2012년 28.0%에서 2014년 28.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비슷하였다는 응답도 2012년 34.4%에서 2014년 30.6%로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또는 약간 상위에 있었다는 응답이 39.8%이고 비슷하다는 응답이 31.1%로서 70.9%가 친인척에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이 나쁘지 않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친인척과의 생활수준 비교인식

단위: 명, %

구분	훨씬 상위	약간 상위	약간 하위	훨씬 하위	비슷	전체
2012	15	32	18	17	43	125
	12.0	25.6	14.4	13.6	34.4	100.0
2013	13	41	27	14	38	133
	9.8	30.8	20.3	10.5	28.6	100.0
2014	15	45	23	19	45	147
	10.2	30.6	15.6	12.9	30.6	100.0
전체	43	118	68	50	126	405
	10.6	29.1	16.8	12.3	31.1	100.0

조사대상이 지닌 지역적 편중 등으로 인해 이러한 조사 결과를 북한사회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북한이탈주민들의 70% 이상은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sup>50</sup> 1순위 응답에서는 중앙당 간부라는 응답비율이 전체적으로 78.1%였고 그 다음이 15.3%를 차지한 법기관 간부였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 조사보다 중앙당 간부가 가장 잘 산다는 응답이 10.7% 감소하였고 2012년 조사보다도 3.6%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법기관 간부라는 인식은 2014년 조사의 경우 2013년이나 2012년 조사보다 각각 4.9%

50. 설문지 선택 항목은 ①중앙당 간부 ②지방당 간부 ③법기관(보위부, 안전부, 검찰 기관) 간부 ④인민위원회 간부 ⑤전문직(의사, 교수, 기술자 등) ⑥외화벌이 ⑦군관 ⑧시장상인(장사) ⑨기업소·공장 간부 ⑩기업소·공장 노동자 ⑪농장 관리일꾼 ⑫농장원이었으나, 응답이 전혀 없는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와 4.8%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앙당 간부가 가장 잘 산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당 간부라는 응답이 미미하게나마 줄어들고 법기관 간부라는 인식이 미세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법기관 간부가 잘 산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표 3-38〉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외화 벌이	군 관	시장 상인	전체
2012	91	3	16	1	6	0	1	118
	77.1	2.5	13.6	0.8	5.1	0.0	0.8	100.0
2013	112	0	18	0	3	0	0	133
	84.2	0.0	13.5	0.0	2.3	0.0	0.0	100.0
2014	108	5	27	0	6	1	0	147
	73.5	3.4	18.4	0.0	4.1	0.7	0.0	100.0
전체	311	8	61	1	15	1	1	398
	78.1	2.0	15.3	0.3	3.8	0.3	0.3	100.0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에 대한 2순위 응답에서는 전체적으로 법기관 간부라는 인식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외화벌이와 지방당 간부라는 응답이 각각 16.7%와 14.8%를 차지하였다. 조사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법기관 간부라는 응답은 2012년 59.3%에서 2014년 47.9%로 11.4%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외화벌이라는 응답

은 2012년 15.7%에서 2014년 19.2%로 3.5% 늘어났고 지방당 간부라는 인식도 2012년 13.9%에서 2014년 16.4%로 2.5% 늘어났다. 다만 이러한 증가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39〉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2순위)

단위: 명, %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외화 벌이	군 관	시장 상인	공장·기업소 간부	공장·기업소 노동자	농장 관리 일꾼	전체
2012	7	15	64	1	17	1	2	0	1	0	108
	6.5	13.9	59.3	0.9	15.7	0.9	1.9	0.0	0.9	0.0	100.0
2013	12	18	67	3	19	2	5	2	1	1	130
	9.2	13.8	51.5	2.3	14.6	1.5	3.8	1.5	0.8	0.8	100.0
2014	13	24	70	2	28	3	5	1	0	0	146
	8.9	16.4	47.9	1.4	19.2	2.1	3.4	0.7	0.0	0.0	100.0
전체	32	57	201	6	64	6	12	3	2	1	384
	8.3	14.8	52.3	1.6	16.7	1.6	3.1	0.8	0.5	0.3	100.0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에 대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외화벌이라는 응답이 2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당 간부와 법기관 간부로 각각 22.8%와 22.6%였고 인민위원회 간부는 10.8%를 차지하였다. 지방당이나 법기관 간부와 미세한 차이를 보이긴 하였지만 외화벌이가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 1순위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정치권력보다는 경제력에 기반한 계층질서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조사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외화별이라는 응답은 2012년 28.7%에서 2014년 22.9%로 5.8% 줄어든 반면 법기관 간부라는 응답은 2012년에 비해 2014년 조사에서 6.1%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3-40〉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별이	군관	시장상인	공장·기업소 간부	농장관리 일꾼	농장원	전체
2012	3	23	23	16	3	35	4	7	7	1	0	122
	2.5	18.9	18.9	13.1	2.5	28.7	3.3	5.7	5.7	0.8	0.0	100.0
2013	1	36	31	12	4	31	6	4	5	2	1	133
	0.8	27.1	23.3	9.0	3.0	23.3	4.5	3.0	3.8	1.5	0.8	100.0
2014	11	32	36	15	4	33	4	4	4	1	0	144
	7.6	22.2	25.0	10.4	2.8	22.9	2.8	2.8	2.8	0.7	0.0	100.0
전체	15	91	90	43	11	99	14	15	16	4	1	399
	3.8	22.8	22.6	10.8	2.8	24.8	3.5	3.8	4.0	1.0	0.3	100.0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에 대한 2순위 인식을 살펴보면 시장상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이 주목된다. 2012년~2014년 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에 대한 2순위 인식은 시장상인이 19.7%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외화별이, 인민위원회 간부, 지방당 간부가 각각 18.2%, 15.5% 그리고 14.2%를 차지하였다. 2014년 조사를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시장상인이라는 인식이 2013년

조사의 19.4%와 비슷한 20.3%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방당 간부라는 인식이 12.6% 증가한 19.6%를 차지하였으며, 외화별이는 7.2% 줄어든 16.1%, 인민위원회 간부는 2.3% 줄어든 14.0%를 차지하였다.

〈표 3-41〉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2순위)

단위: 명, %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별이	군관	시장상인	공장·기업소 간부	농장관리 일꾼	전체
2012	3	17	9	18	9	16	4	21	8	3	108
	2.8	15.7	8.3	16.7	8.3	14.8	3.7	19.4	7.4	2.8	100.0
2013	1	9	9	21	8	30	6	25	14	6	129
	0.8	7.0	7.0	16.3	6.2	23.3	4.7	19.4	10.9	4.7	100.0
2014	1	28	4	20	7	23	7	29	15	9	143
	0.7	19.6	2.8	14.0	4.9	16.1	4.9	20.3	10.5	6.3	100.0
전체	5	54	22	59	24	69	17	75	37	18	380
	1.3	14.2	5.8	15.5	6.3	18.2	4.5	19.7	9.7	4.7	100.0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직업 1순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장원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4.5%를 차지한 공장·기업소의 노동자들이다. 2014년 조사를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농장원의 경우 2012년 51.2%에서 2014년 58.1%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의 경우는 2012년 32.5%에서 2014년 1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이유가 공장·기업소 운영의 정

상화가 진행된 결과인지 농장원보다 사적 경제활동에 종사할 기회가 많고 실제 종사 비율도 큰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42〉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벌이	군관	시장상인	공장·기업소 간부	공장·기업소 노동자	농장관리 일꾼	농장원	전체
2012	0	0	1	5	1	7	1	0	40	5	63	123
	0.0	0.0	0.8	4.1	0.8	5.7	0.8	0.0	32.5	4.1	51.2	100.0
2013	1	0	4	5	1	1	1	3	34	9	74	133
	0.8	0.0	3.0	3.8	0.8	0.8	0.8	2.3	25.6	6.8	55.6	100.0
2014	3	1	6	10	3	4	1	2	25	7	86	148
	2.0	0.7	4.1	6.8	2.0	2.7	0.7	1.4	16.9	4.7	58.1	100.0
전체	4	1	11	20	5	12	3	5	99	21	223	404
	1.0	0.2	2.7	5.0	1.2	3.0	0.7	1.2	24.5	5.2	55.2	100.0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직업에 대한 2순위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공장·기업소 노동자라는 응답이 증가하여 농민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조사의 경우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이 가장 못산다는 응답이 2013년 조사보다 3.5% 증가한 37.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순위 인식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관에 대한 인식이다. 군관이 가장 못사는 직업이라는 인식 비율은 전체적으로 10.2%를 차지하였고,

2014년 조사를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3년 조사와 비슷한 11.3%를 나타냈으나 이는 2012년 조사의 7.1%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군관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군관은 북한에서 가장 또는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였기에 특별히 잘 살거나 아주 못사는 직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는 김정은 정권에서도 선군정치와 군의 후방공급 사업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군관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게 한다.

〈표 3-43〉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2순위)

단위: 명, %

구분	지방당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벌이	군관	시장상인	공장·기업소	공장·기업소 노동자	농장관리 일꾼	농장원	전체
2012	0	1	2	0	8	2	1	39	7	53	113
	0.0	0.9	1.8	0.0	7.1	1.8	0.9	34.5	6.2	46.9	100.0
2013	0	3	4	0	15	4	1	44	12	46	129
	0.0	2.3	3.1	0.0	11.6	3.1	0.8	34.1	9.3	35.7	100.0
2014	1	1	7	2	16	3	4	53	13	41	141
	0.7	0.7	5.0	1.4	11.3	2.1	2.8	37.6	9.2	29.1	100.0
전체	1	5	13	2	39	9	6	136	32	140	383
	0.3	1.3	3.4	0.5	10.2	2.3	1.6	35.5	8.4	36.6	100.0

### 3)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

경제적으로 누구는 왜 부자이고 누구는 왜 가난한지에 대한 인식 1순위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권력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2012년~2014년 전체적으로 본인 직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3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7.7%를 차지한 정치사상성이며 권력층과의 안면관계와 출신성분이 각각 19.1%와 12.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2014년 조사를 이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본인 직위라는 인식은 2012년 45.5%에서 2014년 29.7%로 15.8% 감소한 반면 정치사상성은 2012년 23.6%에서 2013년 31.6%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다시 27.7%로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권력층과의 안면관계나 출신성분은 각각 2012년 16.3%와 6.5%에서 2014년 22.3%와 1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44〉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친척) 관계	권력층 안면 관계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전체
2012	29	56	1	2	20	7	8	123
	23.6	45.5	0.8	1.6	16.3	5.7	6.5	100.0
2013	42	43	0	1	24	4	19	133
	31.6	32.3	0.0	0.8	18.0	3.0	14.3	100.0
2014	41	44	1	1	33	6	22	148
	27.7	29.7	0.7	0.7	22.3	4.1	14.9	100.0
전체	112	143	2	4	77	17	49	404
	27.7	35.4	0.5	1.0	19.1	4.2	12.1	100.0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2순위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권력층과의 안면관계가 36.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을 각각 23.1%와 17.4%를 차지한 본인 직위와 출신성분이 차지하였다. 2014년 조사를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순위 응답에서는 1순위와 달리 권력층과의 안면관계가 2012년 38.2%에서 32.0%로 6.2% 감소하고 본인 직위나 출신성분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2순위)

단위: 명, %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친척) 관계	권력층 안면 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운수 (팔자)	전체
2012	3	28	2	3	47	4	13	22	1	123
	2.4	22.8	1.6	2.4	38.2	3.3	10.6	17.9	0.8	100.0
2013	4	33	3	5	52	8	8	19	1	133
	3.0	24.8	2.3	3.8	39.1	6.0	6.0	14.3	0.8	100.0
2014	11	32	7	3	47	9	6	29	3	147
	7.5	21.8	4.8	2.0	32.0	6.1	4.1	19.7	2.0	100.0
전체	18	93	12	11	146	21	27	70	5	403
	4.5	23.1	3.0	2.7	36.2	5.2	6.7	17.4	1.2	100.0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3순위 인식을 살펴보면 2014년 조사에서 개인성격이나 노력과 같은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대한 지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주목된다. 먼저 전체적으로 출신성분이 21.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개인성격이나 노력이 16.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각각 15.7%와 13.2%를 차지한 권력층과의 안면관계나 본인직위 이외에 사는 지역이 11.7%로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사는 지역의 경우는 국경지역이나 대도시 등 상업유통이나 외화벌이 원천 확보와 같은 사적 경제활동을 하기에 유리한 지역적 장점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조사를 이전조사와 비교하면 출신성분은 2012년 24.6%에서 18.5%로 6.1% 줄어든 반면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이 2012년 13.9%에서 2014년 19.9%로 6.0% 증가하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3순위)

단위: 명, %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친척) 관계	권력층 안면 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노력	출신 성분	운수 (팔자)	전체
2012	6	12	5	3	21	16	17	30	12	122
	4.9	9.8	4.1	2.5	17.2	13.1	13.9	24.6	9.8	100.0
2013	6	20	6	8	19	14	19	28	13	133
	4.5	15.0	4.5	6.0	14.3	10.5	14.3	21.1	9.8	100.0
2014	6	21	8	6	23	17	29	27	9	146
	4.1	14.4	5.5	4.1	15.8	11.6	19.9	18.5	6.2	100.0
전체	18	53	19	17	63	47	65	85	34	401
	4.5	13.2	4.7	4.2	15.7	11.7	16.2	21.2	8.5	100.0

경제적 계층분화에 대한 1~3순위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개인의 실질적 능력과 밀접히 관련된 교육수준은 중

요한 요소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 교육수준을 지적한 비율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각각 0.5%, 3.0%와 4.7%로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비록 2014년 조사의 3순위에서 개인의 자질이나 노력이 19.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치사상적 요인과 권력관계가 계층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잘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에서 중간 정도 수준에서 외화벌이나 시장상인을 지적하는 비율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규정된 계층질서가 경제적 성취에 기반한 계층질서로 변화되는 과정이 아직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부정부패 등과 결부되면서 권력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거나 고민했던 문제를 살펴보면 돈 버는 문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단속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치나 조직생활은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돈벌이라는 응답이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단속이라는 응답도 27.8%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돈벌이와 각종 단속을 합하면 81.8%나 된다. 이에 비해 정치와 관련된 조직생활은 5.8%에 불과하고 출세라는 응답도 3.3%에 그쳤다. 이는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물질주의나 배금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최대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넓게는 결국 경제개혁에 대한 요구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표 3-47〉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단위: 명, %

구분	돈벌이	뇌물 제공	각종 단속	조직 생활	출세	자녀 교육	기타	전체
2012	72	1	28	8	3	6	3	121
	59.5	0.8	23.1	6.6	2.5	5.0	2.5	100.0
2013	66	5	40	9	6	4	3	133
	49.6	3.8	30.1	6.8	4.5	3.0	2.3	100.0
2014	76	6	42	6	4	7	1	142
	53.5	4.2	29.6	4.2	2.8	4.9	2.7	100.0
전체	214	12	110	23	13	17	7	396
	54.0	3.0	27.8	5.8	3.3	4.3	1.8	100.0

#### 4. 경제개혁 인식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부터 경제관리방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준공식매체로 볼 수 있는 <조선신보>의 보도를 중심으로<sup>51</sup> 경제개혁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1년 말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관리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해 2013년 8월 15일 공업부문과

51\_ 김지영, "제재를 박차고 최단기간에 인민생활향상/관건적 고리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 『조선신보』, 2015년 1월 8일; 김지영, "병진로선에 기초한 경제건설/사회과학원 연구사가 말하는 현장의 변화," 『조선신보』, 2015년 1월 26일; 김리영, "경제강국건설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다/광명성철 건축 시험 연구토론회," 『조선신보』, 2015년 2월 11일 등 참조.

농업부문에 도입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명명하고 시범적인 조치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5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다룬 소위 '노작'도 발표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밝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의 3가지 원칙은 ①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의 올바른 실현, ②공장과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올바른 실현 그리고 ③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보장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나가는 것이다. 한편 농업부문의 경우 분조관리제 하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2012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고 2013년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큰 틀은 계획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노동력관리권, 재정권, 합영합작권 등의 권한을 조정하여 기업의 독자적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확립하여 평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경제개혁의 지향점이 "현실발전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집단주의 체계의 확립"이며 이는 과거 다른 나라의 방식과는 달리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 기업체들의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생산, 경영활동을 결합, 일체화시켜 경제발전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지도와 관리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하고 객관적 경제법칙들에 철저히 의거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들을 옹계 이용하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귀착점은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며 사회주의적 소유와 원칙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와 집단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부분적인 제도개혁 등을 통해 경제체제의 효율성과 생산의욕 유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 주민들은 어떤 경제개혁을 생각하고 이는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북한이 잘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경제개혁의 핵심적 요소일 수 있는 사유화 대상에 대한 인식도 살펴보았다.

### 1)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최고영도자라는 응답이 전체의 74.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12.1%를 차지한 당지도부였다. 이는 북한 정치권력의 위계구조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지만 최고영도자로서 혁명의 뇌수인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반복적인 선전과 학습이 낳은 인식일 수 있다.

〈표 3-48〉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 소재) 1순위

단위: 명, %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전체
2014	3	5	11	18	1	111	149
	2.0	3.4	7.4	12.1	0.7	74.5	100.0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당지도부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30.3%를 차지한 내각(총리, 상, 국가계획위원장 등)이었다. 반면 공장이나 기업소 등의 당비서나 지배인, 기사장과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 중간 관리자들과는 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표 3-49〉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 소재) 2순위

단위: 명, %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기타	전체
2014	1	19	44	58	12	9	2	145
	7	13.1	30.3	40.0	8.3	6.2	1.4	100.0

이는 북한의 지도부가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며 수령과 당의 방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를 인민의 입장에서 인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경제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sup>52</sup> 실제 주민들은 핵심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수령과 당지도부 그리고 내각에 실정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당국의 공식적인 주장이나 선전과 주민들의 실제 인식 간의 격차와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을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52\_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5년 2월 19일.

별 5분위 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1순위 응답에서 최고영도자 탓이라는 응답은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최상위 집단에서 80.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당지도부라는 응답은 50만원 이상에서 가장 적은 4.9%를 기록하였고 1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중하-중간-중상층에서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론 소득 최상위 계층에서 최고영도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크다고 이들이 곧 체제비판이나 불만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에 따른 인식 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3-50〉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수입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전체
1만원 미만	1	1	2	3	0	19	26
	3.8	3.8	7.7	11.5	0.0	73.1	100.0
50만원 미만	1	3	5	12	1	56	78
	1.3	3.8	6.4	15.4	1.3	71.8	100.0
50만원 이상	1	1	4	2	0	33	41
	2.4	2.4	9.8	4.9	0.0	80.5	100.0
전체	3	5	11	17	1	108	145
	2.1	3.4	7.6	11.7	0.7	74.5	100.0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5분위 수입을 기준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2순위 인식을 살펴보면 당지도부라는 인식이 최하위층인

1만원 미만이나 최상위층인 50만원 이상에서 40% 중반대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중하-중간-중상층인 1만원 이상~50만원 미만에서는 최하위나 최상위층보다 10% 이상 낮은 34.2%를 차지하였다. 내각 탓이라는 인식에서도 최하위층이나 최상위층은 30%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나 중하-중간-중상층에서는 25.0%로 다른 층위보다 낮은 수준들 나타났다. 그리고 공장이나 기업소 등의 당비서나 지배인, 기사장과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 중간 관리자들과는 응답은 최하위층이 16.4%인 반면 최상위층은 12.5%로 나타나 수입이 커질수록 중간관리자 탓이라는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인식의 수입 구간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한편 2순위 응답에서 주목할 부분은 군부 탓이라는 인식 격차이다. 수입이 최하위 또는 최상위인 층에서는 군부 탓이라는 지적이 없었던 반면 중하-중간-중상층에서는 군부 탓이라는 인식이 15.8%를 차지하였다. 1순위 응답이나 2순위 응답 모두에서 군부 탓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하-중간-중상층의 15.8%가 군부라고 지적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부라고 응답한 중하-중간-중상층의 12명은 소매장사나 되거리장사가 각각 3명이고 나머지는 개인편의 봉사, 식당이나 상점 임대와 운영, 소토지 농사 등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사례들을 관통하는 구조적인 연관 요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표 3-51〉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수입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2순위)

단위: 명, %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기타	전체
1만원 미만	1	4	8	11	0	1	0	25
	4.0	16.0	32.0	44.0	0.0	4.0	0.0	100.0
50만원 미만	0	10	19	26	12	7	2	76
	0.0	13.2	25.0	34.2	15.8	9.2	2.6	100.0
50만원 이상	0	5	15	19	0	1	0	40
	0.0	12.5	37.5	47.5	0.0	2.5	0.0	100.0
전체	1	19	42	56	12	9	2	141
	0.7	13.5	29.8	39.7	8.5	6.4	1.4	100.0

## 2)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1순위 응답을 보면 자본주의 도입이 3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모두 26.8%를 차지하였다. 이는 사실상 경제체제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하는 자본주의 도입이나 부분적인 개혁과 대외개방 확대를 의미하는 경제관리방법 개선이나 대외경제협력 확대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 주민들이 현재 북한 당국이 추진 중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완성(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제)이나 경제 특구나 개발구를 통한 대외경제협력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 최소한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최소한 정책추진 과정을 관망이라

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는 물론 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sup>53</sup> 김정은 정권의 “공약”에 대한 검증과정이자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좌우될 수도 있는 핵심사인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북한 당국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사상성 강화나 새세기 산업혁명과 같은 과학기술발전은 각각 6.0%와 5.4%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정치사상성이나 새세기 산업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은 이러한 선전이나 강조에 크게 공감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순위 응답을 보면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48.6%로 절반에 육박한 가운데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자본주의 도입이 각각 20.8%와 18.8%를 차지하였다. 1순위 응답에서는 자본주의 도입이나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2순위 응답에서는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경제관리방법 개선이나 자본주의 도입보다 30% 전후 높은 수준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도입이나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같은 경제체제 상의 변화 필요성과 아울러 어느 쪽으로의 변화든 대외경제협력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폭넓게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또한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주목하게 한다.

53\_ 김정은, “선군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김정은 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5일.

〈표 3-52〉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2014)

단위: 명, %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1순위	9	8	40	40	48	4	149
	6.0	5.4	26.8	26.8	32.2	2.7	100.0
2순위	0	14	30	70	27	3	144
	0.0	9.7	20.8	48.6	18.8	2.1	100.0

교육수준별로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 학력수준에서는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5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30.0%를 차지한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였다. 반면 전문학교 학력수준에서는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자본주의 도입이 25.0%로 그 다음을 차지하면서 대학재학 이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중학교의 경우는 자본주의 도입이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빈도수가 적은 인민학교 학력수준을 제외하더라도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같은 체제 내적인 부분개혁을 선호하고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자본주의 도입을 선호하는 비중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학교나 고등중학교 학력보유자들의 장사경험이 대학(교) 학력수준을 지닌 사람들보다 높은 현상과도 관련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빈도와 특성상 이러한 양상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잡아 가는지는 향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53〉 교육수준별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대학(교) 이상	0	2	10	6	2	0	20
	0.0	10.0	50.0	30.0	10.0	0.0	100.0
전문학교	3	0	11	7	8	3	32
	9.4	0.0	34.4	21.9	25.0	9.4	100.0
고등중학교	5	6	19	26	35	1	92
	5.4	6.5	20.7	28.3	38.0	1.1	100.0
인민학교	0	0	0	1	2	0	3
	0.0	0.0	0.0	33.3	66.7	0.0	100.0
전체	8	8	40	40	47	4	147
	5.4	5.4	27.2	27.2	32.0	2.7	100.0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부자재의 출처별로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북한산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일부 나타난다. 먼저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부자재로 북한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체제 내적인 개혁조치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본주의 도입이 3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체제전환 성격의 변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북한산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을 사용하든 중국산을 사용하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였다. 응답 빈도가 매우 적긴 하지만 남한산이나 일본

산, 기타 다른 나라 물건이나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자본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표 3-54〉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부자재 출처별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북한	4	1	15	9	5	0	34
	11.8	2.9	44.1	26.5	14.7	0.0	100.0
중국	1	6	16	21	28	3	75
	1.3	8.0	21.3	28.0	37.3	4.0	100.0
남한	0	0	0	0	3	0	3
	0.0	0.0	0.0	0.0	100.0	0.0	100.0
일본	0	0	0	0	1	0	1
	0.0	0.0	0.0	0.0	100.0	0.0	100.0
기타	0	0	0	0	1	0	1
	0.0	0.0	0.0	0.0	100.0	0.0	100.0
전체	5	7	31	30	38	3	114
	4.4	6.1	27.2	26.3	33.3	2.6	100.0

### 3)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생산수단의 사유화이다. 이와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

식 1순위에서 전체적으로 시장매대가 30.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소토지가 26.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살림집이 12.8%로 세 번째 큰 비율을 나타냈다. 시장 매대와 소토지가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북한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시장을 매개로 한 상업유통 분야나 소토지 농사 등에 상대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유화에 대한 인식이 유통시설이나 공장설비 등에 대한 소규모 사유화까지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이 우선적인 상거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3.8%에 불과하다. 2014년 조사를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시장 매대나 소토지를 우선적인 상거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농장의 분조경작지나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을 우선적인 상거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미미하게 늘어나는 한편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10.6%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표 3-55〉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	개인 운영 국가 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본 적이 없음	전체
2012	33	14	38	5	9	2	8	8	117
	28.2	12.0	32.5	4.3	7.7	1.7	6.8	6.8	100.0
2013	37	18	48	14	5	5	5	1	133
	27.8	13.5	36.1	10.5	3.8	3.8	3.8	0.8	100.0
2014	35	19	36	14	10	8	8	17	147
	23.8	12.9	24.5	9.5	6.8	5.4	5.4	11.6	100.0
전체	105	51	122	33	24	15	21	26	397
	26.4	12.8	30.7	8.3	6.0	3.8	5.3	6.5	100.0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2순위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살림집이 2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시장 매대나 소토지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국영상점이나 기업소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개인소유인 화물차나 발동선을 우선적인 상거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14.2%와 11.0%로 10.0% 이상을 기록하였다. 2014년 조사를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살림집과 시장 매대, 개인이 운영하는 국영상점의 비율이 줄어들고 소토지가 약간 늘어난 가운데 협동농장의 분조경작지와 소규모 지방산업공장, 기업소 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 화물차나 발동선은 각각 6.7%와 9.0%, 7.5% 늘어났다. 이는 생산수단의 소규모 사유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3-56〉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2순위)

단위: 명, %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	개인운영국상점	농장분조경작지	소규모지방산업공장	기업소명의로개인소유화물차발동선	생각해본적없음	전체
2012	16	28	13	14	8	10	13	4	106
	15.1	26.4	12.3	13.2	7.5	9.4	12.3	3.8	100.0
2013	14	41	32	23	3	4	9	7	133
	10.5	30.8	24.1	17.3	2.3	3.0	6.8	5.3	100.0
2014	17	29	18	16	12	16	19	6	133
	12.8	21.8	13.5	12.0	9.0	12.0	14.3	4.5	100.0
전체	47	98	63	53	23	30	41	17	372
	12.6	26.3	16.9	14.2	6.2	8.1	11.0	4.6	100.0

## 5. 평가와 시사점

먼저 시장화와 관련해서는 2014년의 경우 2013년 조사보다 장사경험자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70%대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사경험을 중심으로 시장경제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층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가 92.5%, 40대가 84.7%, 50대가 75.0%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교육수준으로는 전문학교와 고등학교가 76.3%와 7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대학(교)이상은 50.0%로 나타났고 공식적인 직업분류상으로는 가정부인이 9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78.3%를 차지한 노동자와 66.7%를 차지한 사무원, 56.0%를 차지한 전문가들이고 농민은 절반 이하인 46.2%로 나타났다. 한편 장사를 전업으로 한 경우는 무직자나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10%정도로 나타났다.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를 보면 2014년 조사의 경우 2013년 조사보다 소매장사와 샅별이 비중이 줄고 되거리 장사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2012년 조사 이후 전체 자료를 통합해서 살펴보면 소매장사와 되거리장사를 합한 장사의 비중이 46.4%로 유통업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생산부문일 수 있는 개인(임)가공은 3.2%에 불과하여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이 여전히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한 기간은 전체적으로 5년 이상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6개월 미만은 10% 정도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사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가족 이외의 타인을 고용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26.0%로 나타났으며 일거리별로 보면 외화벌이가 7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퇴거리장사>돈장사>개인편의봉사가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고용규모 측면에서는 5인 미만이 50% 정도를 차지하였고 고용기간의 경우 6개월 이상이 절반 정도이고, 1년 이상은 19.2%로 나타났다.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자금 마련(41.3%)이, 2순위 응답에서는 단속과 뇌물제공(49.0%)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전체 수입에서 뇌물로 제공된 비중의 경우 2014년 조사에서 2013년 조사보다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뇌물을 제공한 경우만 고려하면 수입의 20%가 넘는 비중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응답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부자재의 출처를 살펴보면 2014년 조사의 경우 2013년 조사보다 북한산의 비중이 5.5% 감소하고 중국산이 3.6%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산이 29.8% 정도이고 중국산이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한산은 2.8%에 불과하였다. 한편 장사나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중국산의 비중이 23.9%나 높고 반대로 50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북한산의 비중이 22.9%나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분화와 관련해서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가구생활비의 경우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012년 37.3%에서 2014년 55.1%로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는 47.2%를 차지하였다. 5만원 이상을 지급 받았다는 응답도 5.4%로 나타나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벌어들인 월평균 가구수입의 경우 전체적으로 하위 13.9%는 수입이 전혀 없는 반면 상위 13.4%는 1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보인 구간은 28.5%를 차지한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었다. 국가가 지급한 가구 생활비 총합을 전혀 없는 경우와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으로 나누고 장사나 부업으로 벌어들인 가구 수입을 하위 20%에 근접하는 1만원 미만(전체의 21.2%)과 상위 20%에 근접하는 50만원 이상(24.9%)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가지급 가구 생활비 총합이 1만원 미만이고 장사나 부업수입도 1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이 17.8%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와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소한 조사 대상자의 78.1%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보다 장사나 부업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이 사적 경제활동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가장 잘사는 직업의 경우 1순위에서는 중앙당 간부, 2순위에서는 법기관 간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간 정도 사는 직업의 경우는 1순위에서 외화벌이, 2순위에서 시장상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가장 못사는 직업에서는 1순위에서 농

민(55.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외화벌이와 시장 상인이 중간 정도 잘사는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로는 1순위에서 본인 직위, 2순위에서 권력층과의 안면관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1순위의 경우 본인 직위, 정치사상성,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출신성분 등 정치적 문제가 94.3%를 차지한 반면 개인성격이나 노력, 교육수준은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소득분화가 여전히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먼저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 1순위에서 74.5%가 최고영도자를 지적하였고 2순위에서는 40.0%가 당지도부를, 30.3%가 내각을 지적하였으며 군부를 지적한 응답은 1순위에서 0.7%, 2순위에서 8.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정권이나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민들 대다수가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이 경제난을 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1순위에서 자본주의 도입, 2순위에서는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관리방법 개선은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사상성 강화나 과학기술발전은 10% 미만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관련된 2014년 조사의 경우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 1순위에서는 2013년 조사에 비해 시장매대와 소토지가 감소하고

농장의 분조경작지가 증가하였으며 2순위에서는 2013년 조사에 비해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나 발동선>소규모 지방산업공장>농장 분조경작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1순위에서 시장매대>소토지>살림집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순위에서는 살림집>시장매대>개인운영 국가상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2순위에서 소규모 사유화에 대한 인식 증가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사유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발전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4장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4장

###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입각해 핵무기 보유국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핵무기의 전력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인민생활 향상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제 인민생활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지는 정권의 담론과 무관하게 관찰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본 조사는 김정은 정권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산업부문의 상황을 보면 농림어업이나 경공업이 미약하나마 성장하고 있다. 본 조사대상자들이 북한을 이탈한 연도였던 2011년~2013년 사이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자료를 보면, 농림어업은 직전 연도에 비해 2011년 5.3%, 2012년 3.9%, 2013년 1.9% 증가하였다. 경공업의 경우 2011년에는 -0.1%였으나 2012년과 2013년 각각 4.7%와 1.4% 증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생활에 대한 2014년 조사를 살펴보면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민들의 식생활

에서는 양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보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루 세 끼 먹었다는 응답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두 끼 먹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대신 한 끼를 먹었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이는 주식의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쌀밥을 섭취하였다는 응답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강냉이로만 식사를 했다는 응답도 증가하였다. 고기 섭취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생활의 경우 의류 구매 횟수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중국산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산의 비중이 다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류 구입 경로의 경우 국가 공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을 반영하듯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2014년 조사의 경우 전년에 비해 살림집의 매매가 감소하고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다만 이것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경제부문의 성장과 그에 따른 공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에서 활성화되는 중이라고 알려진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2014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주택 매입 시기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는데 돈을 주고 살림집을 장만하였다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6.5%가 2006년~2010년 사이에 살림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에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된 시기가 2000년대 후반일 가능성이 주목된다.

최근 북한 내 한류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사용해 본 물건은 의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잡화나 식품류가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탈북 직전 자신의 생활수준을 상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남한 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잘살거나 못사는 지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부(富)의 편중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양을 제외하고 3년 연속으로 가장 잘사는 도는 평안남도가 차지한 반면 가장 못사는 도는 강원도가 차지하였다. 이는 시군에 대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잘사는 시는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 라선시가 차지하였다가 2014년 조사에서는 신의주시로 바뀌었지만 가장 못사는 시는 3년 연속으로 사리원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부가 집중되는데다 특히 대외무역 등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가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나 사리원의 경우 향후 남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가능성을 주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계소득의 지출을 살펴보면 식의주 해결이 3년 연속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역시 3년 연속으로 '장사 또는 사업 밀착'을 마련하는 데 지출한 것이고, 3위는 2년 연속 '자녀교육'이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미래를 위해 모아둔다'는 응답으로 바뀌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 3순위지만 큰 비중을 차지한 점은 북한 내에서 부의

축적이 어떤 규모와 형태로 전개될지를 주목하게 하는 현상으로 향후 추가 관찰과 주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사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4%였는데 주요 내용은 음악이나 외국어 교육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주민생활 변화의 이면에는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소득분화 및 불평등 심화가 존재한다. 먼저 시장화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장사경험이 전체적으로 70%대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경제활동에 가장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층은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 교육수준으로는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 학력수준, 공식적인 직업분류상으로는 가정부인과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사를 전업으로 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를 살펴보면 소매장사나 되거리 장사와 같은 유통업의 비중이 46.4%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유통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한 기간을 보면 5년 이상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가족 이외의 타인을 고용한 경우는 4명 중 한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는 5인 미만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 규모가 영세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자금 마련이며 그 다음이 각종 단속과 그에 따른 뇌물제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부패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시사하며 김정은 정권이 부패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천명하고 있는<sup>54</sup> 배경에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부자재 출처의 경우 2014년 조사에서 2013년 조사보다 북한산의 비중이 약간 감소하고 중국산이 늘어난 양상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북한산이 약 30% 정도이고 중국산이 66.5%를 차지하여 중국산의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적 경제활동 등에 따른 소득분화를 살펴보면 소득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012년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급 받은 경우에도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의 실적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확대과정에서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사 등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월평균 가구 수입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입이 전혀 없었던 응답이 13.9%를 차지한 반면 1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응답도 13.4%를 차지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상위 25% 정도가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월평균 가구 소득은 50만 원 이상인 반면 하위 20% 정도는 1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국가지급 가구 생활비 총합도 1만 원 미만이고 장사나 부업 수입도

54.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노동신문』, 2015년 2월 19일.

1만 원 미만인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계층은 전체의 17.8%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의 78.1% 정도가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지급 생활비보다 많은 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 경제활동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매우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분화에 따라 북한사회의 정치적 계층질서가 얼마나 사회경제적 계층질서로 변화되고 있는가? 북한에서 잘사는 직업과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을 근거로 이를 살펴보면 정치적 위계에 따른 계층질서가 여전히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소득분화도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먼저 북한에서 잘사는 직업은 <중앙당 간부><법기관 간부><외화벌이><지방당 간부><시장상인><인민위원회 간부>이며 농민이 가장 못사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사적 경제활동 등으로 부를 축적한 외화벌이나 시장상인이 중간 정도 잘 사는 집단으로 부상한 듯하다. 이러한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로는 본인 직위나 권력층과의 안면관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정치적 사상성과 출신 성분까지 포함한 정치적 요인을 지적한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먼저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최고영도자 탓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당지도부와 내각이고, 군부라는 인식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이 물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표출이나 정치변동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추이와 정치사회적으로 지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함의들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본주의 도입>대외경제협력 확대>경제관리 방법 개선 등이 지적된 반면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사상성이나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인식은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한 자본주의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체제 전환까지 포함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 참고문헌

---

## 1. 단행본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대전: 통계청, 2011.

김석진 외,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르페브르, 앙리,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 2005.

박명규·장용석·정은미·송영훈, 『북한사회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부르디외, 피에르,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6.

비어즈워스, 앨런 외, 박형신·정현주 역, 『메뉴의 사회학: 음식과 먹기 연구로의 초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엘리아스, 노르베르트, 박여성 역, 『궁정사회』, 파주: 한길사, 2003.

이연숙,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통계청,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대전: 통계청, 2014.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0』, 서울: 통일부, 2010.

호이써만, 하르트무트 외, 서봉원 역, 『주거사회학: 주거의 변동과 세분화에 관한 개론』, 서울: 백산서당, 2014.

Sorokin, Pitirim A, *Society,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47.

## 2. 논문

김석진, “2014년 북한 사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월호.

양문수, “북한 시장화 논의의 지형과 담론.” 『북한의 권력과 사회동학』,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2014년 7월 11일).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장용석, “2014 통일의식조사: 대북정책.”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통일의식조사 발표 (2014년 10월 1일).

정은찬, “북한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탁성한 외, “북한의 불평등성 실태와 심도 추정.” 성채기 외, 『북한 경제규모의 대안적 추계와 불평등의 실상』, 서울: 국방연구원, 2014.

함형필, “북한의 군사위협 변화: 핵능력 발전과 핵운용 전략.” 『한국의 안보와 국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북한경제리뷰』, 2014년 8월호.

Nelson, Michael, “Social-class trends in British diet, 1860~1980,” in Catherine Geissler and Derek J. Oddy eds, *Food, Diet and Economic Change Past and Present*,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3.

## 3. 북한자료

김리영, “경제강국건설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다/광명성절 경축 시험 연구토론회.” 『조선신보』, 2015년 2월 11일.

김일룡,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전략 실현의 중요 방도.” 『경제연구』,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pp. 29~31.

김정은. “선군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지: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김정은 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5일.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김지영.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 『조선신보』, 2013년 12월 24일.

김지영.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현장레포트(상): 생산효율에 대한 추구와 새 품종 개발.” 『조선신보』, 2013년 12월 24일.

김지영.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현장레포트(하): 농민들의 의식개조와 증산의 실현.” 『조선신보』, 2013년 12월 25일.

김지영. “제재를 박차고 최단기간에 인민생활향상/관련적 고리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 『조선신보』, 2015년 1월 8일.

김지영. “병진로선에 기초한 경제건설/사회과학원 연구사가 말하는 현장의 변화.” 『조선신보』, 2015년 1월 26일.

김지영. “병진로선에 기초한 경제건설/사회과학원 연구사가 말하는 현장의 변화.” 『조선신보』, 2015년 1월 26일.

리태호.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1년, 생산현장의 변화.” 『조선신보』, 2014년 4월 2일.

서재영.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리태호. “협동벌에 부는 혁신의 바람(상): 증산의 원동력은 농장원의 열의.” 『조선신보』, 2014년 5월 3일.

손영석.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pp. 17~18.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조국해방 일흔 둘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 둘에 즈음하여.” 『조선중앙통신』, 2015년 2월 12일.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5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 1 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노동신문』, 2015년 2월 19일.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ang yang: CBSD, 2009.

#### 4. 기타

“北장마당 동향,” DailyNK (온라인),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0

## 북한사회변동 2014

**발행** 2015. 04. 23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박명규  
**저자** 장용석·정은미·박명규 저  
**등록** 119-82-67975 (2006.7.7)  
**주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4052~4, 874-7304  
**팩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 (02-722-7123)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

북한사회변동 2014 : 시장화, 불평등, 경제개혁

저자 : 장용석, 정은미, 박명규.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20)

참고문헌 수록

ISBN 979-11-955093-1-7 93340 : 비매품

북한 경제[北韓經濟]

북한 사회[北韓社會]

309.111-KDC6

301.095193-DDC23

CIP2015012175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